朝鮮日報 夕刊 十三日(土) 本紙朝夕刊二十面

金鶴香油

湖北省을中心으로 戰區再組織命令
蔣, 人力物力을總動員

【香港十三日發同盟】我揚子江遡江部隊의 進擊에 狼狽한 蔣介石은 最近武漢衛戍司令陳誠에게 湖北省을 中心으로 九戰區의 再組織을 命하야 同戰區正副司令長官에 陳誠、萬耀煌을 또揚子江南岸前敵總指揮官에 李漢魂 北岸前敵總指揮에 揚森을 各各任命하엿다 右戰區司令部는 衛戍司令部保安司令部省政府各省을 包括하는 자못 大規模한것인데 다시 이와 併行하야 戰區總動員會를 組織하고 人力과物力을 總動員시켜 戰區總司令部와 協力하야 武漢防衛에 當하게 되엿다고한다

"保衛武漢"標語下 武漢防禦에主力

【上海十三日發同盟】漢口來電에依하면 軍事機關과 함께漢口에 殘留한 中央宣傳部、政治部、武漢衛戍總司令部、政治部、市黨部、省政府、市政府等七機關은 上海事變一周年을 機會로 武漢保衛宣傳運動委員會를 結成하고 드디여 今十三日부터 이運動을 開始하엿는데 이는『保衛大武漢』의意見미테 할수잇는대로 日本軍의 進攻을 阻害하고 支那의 武漢保衛力을 增强시킬 모든 宣傳機關을 總動員하야 武漢防衛에 協力코저하는것인데 事實은 資產家의 財產調達、有產階級의 援助로써 慰勞會의 强制組織、保衛의 名目下에 此等諸權의 破壞工作이 公然히 橫行되고잇는一方 八月初부터 移動交代中이든 武漢防衛軍은 지난 六日부터 繼續하야 市街戰演習을 行하는데 漢口區域은 日本租界全部 萬國競馬場 武昌城內의 蛇山 漢陽鐵工廠組山等이 모두 그속에 包含되엿다 抗戰滿一年을 마진 武漢三鎭의『保衛武漢』運動展開와함께 國府는 드디여 斷末魔的 活躍을 하는中이다

事變記念日마저 上海市警戒森嚴

【上海十二日發同盟】上海戰勃發한지도一年 八月十三日의 記念日은 敵의不城漢口陷落을 目前에둔緊迫裡에 마지하는데 在留日本人中部小學校校庭에는 租界警備에 몸으로써 방패가되고 防寨가되여 죽은陸戰隊將兵을 비롯하야 幾多護國英靈의 祭壇이 設置되여 午前八時 甘野民團長司祭下에 三萬의居留民은 靈前에서嚴肅한 慰靈祭를 擧行, 一方

은八·一三을 目標로하고 租界內擾亂을 企圖하는 抗日分子暴動의情報에 數日來부터 戒嚴狀態로嚴重한警戒를 繼續해온 佛共同兩租界는 十三日早朝부터 完全한 戒嚴令下에 街頭에 城寨한土囊陣地 租界境界線一帶의 重要道路各處에 둘러친鐵條網 工部局警察을 비롯하야 各國駐屯兵義勇隊는 銃劍鐵兜로써 武裝을하고 全員總出動하며 裝甲自動車 탱크等도 南京路로부터 뻔드로 繁華한 거리를 頻繁히往來하야 물샐틈도업는 警戒로서 事變勃發當時와가튼 팽팽한 緊張狀態이다

徹宵嚴重警戒로 上海市內平穩

【上海十三日發同盟】十二日手榴彈事件頻發과 抗日삐라의 撒布等으로 上海全市는 異狀한殺氣를띤채로 上海事變一周年記念日을 마젓는데 徹宵하야 물샐틈도 업는 警戒때문에 今日아침은 爲先平穩히지내다 但共同、佛國兩租界의 居住支那人은 一齊히靑天白日旗를 揭揚하고 特히佛國租界는 國旗바다를 일우엇고 또 今朝에도 英字紙는 一齊히記念日에關한社說을 揭載하야 記念의意義와過去의 戰績等에對하야檢討를加하며漢字紙는『事變을 잇지마라』라고呼號하고잇다 十三日의支那側의 이가튼行動은 全然外國權益미테 숨어서 제딴에는 反日의意를 表示하고잇는것인데 同時에또한 靑天白日旗를 내건點으로보아 抗日分子의暗躍策動은 相當히徹底되여잇는것으로 觀測된다

我海荒鷲群에게 爆擊된 黃沙 廣東□寸工場

來襲한敵機追擊
湖口南方서二機擊墜

【九江十二日發同盟】昨十一日午前二回의 來襲에 繼續하야 今日午後五時又復敵 重爆擊機五機가西南方으로부터 九江上空에나타나爆彈을 江中에 投下하고飛去하려하므로 때마츰 警戒中이든我海軍航空隊의 荒鷲三機가이를追跡 湖口南方에서 이에肉薄 忽然二機를 擊墜하고 다시遁走하려는 三機를 追擊하야 南昌上空에서 壯烈한 空中戰을 演한後이를 潰走케하엿다。

上海戈登路서 支那人二名負傷

【上海十二日發同盟】緊張裡에서 [illegible] 은 事變一周年記念日前日인 十二日 午後九時二十分 共同租界西部 戈登路內外棉會社 東部前에 手榴彈一個를 投擲한 陸漢이잇서 轟然한 炸裂과 함께 支那人二名이 重傷을 입엇는바 日本人側에는 被害가업섯다

"我等任務는重大" 宍戶陸戰隊司令官談

【上海十二日發同盟】宍戶陸戰隊司令官談 上海方面에서 會戰이開始된當時 意義기픈 記念日을마지하야 現地에서 戰果擴充의任務에 從事하면서 當方面을 發端으로 進展中인 中支方面의戰果와 및日益强化되고잇는 銃後鞏固를回顧하매過去一個年의 國民的努力으로 戰果가 얼마나偉大하게 되엿는지 참으로 感慨不堪하는바이다 一死報國 當方面戰線의 犧牲이된 幾多의將士도 또한 이로써 慰安을어들것이라고 밋는다 至今에水陸並進하고잇는 我遡航作戰은 皇軍大勝利下에 着着進展되여 九江攻略으로 敵의牙城漢口의運命은 風前燈火와 가티되엿다 我陸戰隊는 이重大作戰에 呼應、友軍陸上部隊와 協力하야 益益上海의 守護를 堅固히하며 中支方面 明朗化의 源泉中樞의 確保와 그復興 發展을 期하고 一層努力하는바이다 今日意義기픈 記念日을 마지할때 我等의 任務가 如何히 重大한것인가를 痛感하는念이 새로워지며 一層奮勵를 期하는바이다

時事解說 國共合作의强化

上海電報에 依하면 最近發表 國共의 右派가 漢口로부터 上海에 潛入하야 蔣介石에게 容共排斥의 烽火를 들엇다한다。이것은 最近 國共의 分合說이 交錯되야 正體를 알기 어려운때에잇서서 그合作强化의事實을 暴露하는 消息으로서 매우 注目할만한 [illegible] 國共合作의 [illegible] 西安事件에서부터 [illegible] 支那事變勃發과 함께 結實된것이다 그러나 蔣介石은 事變後 容共政策을 採擇하기는하엿스나 恒常그勢力의 擴大를 꺼려하얏다 前年蘇支密約締結時만해도 孫科의 莫斯科訪問이 全然失敗된것처럼傳한것은 蔣의共產系의 勢力牽制策이엿다고 한다。

◇

[illegible] 國共合作의 [illegible] 共產系의 活動은 徐州戰後 [illegible] 最近에는 武漢防衛에 그들의勢力範圍가 또한 매우擴大되고잇는것이 事實이다 어떠튼 前에比하야 國共合作이 一層强化된것은 明確한事實인데 그러면 그强化의 裡面에는 蔣政權의 어떠한苦肉策이 숨어잇는가。

◇

이러케 細心하게 共產黨의 制勳策을 생각하는 蔣은 天下周知의 事實이다。그러나 國共合作이란 元來 [illegible] 武漢의 運命이 切迫된것으로서 그들의 要求를 [illegible] 蔣介石은 武漢의 [illegible] 切迫 [illegible] 그러나 여러가지 難點을 가지고잇는것임으로 今後의 그推移는 注目치안흘수업다。

佛國、廣州灣에 海軍根據地構築?

【香港發電】香港의 사우드·차이나·모닝·포스트는紙의 廣東特電에依하면 最近佛海軍의活動은 南支에서 活潑한活動을하야 西沙島附近、南支에서 現在大小合計 七隻의 佛國軍艦이 [illegible] 佛國海軍武官을 招請、廣州灣을 觀察시켯다 重慶이 [illegible] 이라한다 그리고 前記海軍武官은 同地方의 狀況을大略如左히 報告한다 廣州灣의 防禦工事는 이미完成되여 軍事的으로는 極히重大한 價値를가지고잇다 지난六日 廣東에 到着한 支那人의 이야기에 依하면 佛國은 印度支那에서의 最初試驗으로서 最近建設한 佛領印度支那防空營는 同地의 支那商人에對하야도 [illegible] 西沙島附近에는 佛巡洋艦二隻이 碇泊中인듯한데 今週中에 海南島를 訪問할豫定으로 이몬을 支那當局에도 通知가잇섯다한다 하노이로부터온 報道에依하면 佛國은 廣州灣에 海軍根據地를 準備할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一朝有事之秋에 佛海軍만아니라 英海軍의 使用에도 提供될것갓다 이리하야 駐支佛國大使나자르氏는 最近同時에 旅行하엿는데 外國海軍武官을 招請、廣州灣을觀察시켯다

"張鼓峯稜線에서 兩軍八十米後退"
現地兩軍署名의覺書內容

【東京電話同盟】陸軍省十三日午前十一時二十分發表 十二日午後九時三十分 兩軍代表의 署名한 覺書概要는 如左하다 兩軍代表는 張鼓峯稜線北部에서 日蘇兩軍이 極히 接近하고잇는 特殊事情에 鑑하야 左記協定을함

一、張鼓峯稜線北部의 現地에關하야 爲先 兩國政府에報告할事

二、日蘇兩軍指揮官은 軍事行動停止에關하야 兩國政府의 決定에 依하야 今後 張鼓峯附近에서는 如何한事件도 發生치안토록 萬全의 處置를 取할것을 保證함

三、一九三八年八月十二日午後八時부터 日蘇兩軍은 張鼓峯稜線에서 日蘇兩軍主力을 稜線으로부터 八十메돌線에 後退시킬것、그런데 調印完了는 午後十一時頃이엿다

『註』

一、日蘇兩軍停戰時의 位置를 記入한地圖에는 十三日署名을 行할터이다 兩國代表는 昨十二日午後부터 五十二高地南方으로부터 逐次 現地調査를 行하야 日本軍이 張鼓峯頂上을 完全히 保持하고잇슴을 蘇軍代表에게 確認시켯다

二、蘇軍代表는 슈테룬大將外 세미요노프스키旅團委員(政治部少將) 웨소토프大佐, 我方의 委員은 長大佐、吉田中佐、田中少佐이엿다

樺太日蘇國境서도 蘇聯兵不法射擊
警戒中巡査二名重輕傷

【豊原電話同盟】樺太廳十二日午後十時四十分發表 今日午後三時頃、手代木龍吉代議士一行四名은 半田澤國境視察에際하야 半田澤派出所松田巡査部長以下 巡査二名을同行 그保護取締中 第二號國境碑附近國境線으로부터 北方數메돌되는 蘇領內高所에서 步兵七、八名이潛伏、不法하게도 突然我方에 向하야 七、八發砲狙擊하야 取締中의 巡査一名은 腹部에貫通銃創을입고 一名은 頭部及腹部에 擦過傷을當하엿스며 其他는 無事한模樣이다 我方은越境한 事實이 업다 그리고警備警察官은 巡[illegible] 警戒中이다

蘇兵不法射擊詳報

【敷香電話同盟】十二日午後手代木代議士는 令息一人을同伴 半田澤駐在所에와서 [illegible] 同駐在所巡査二名 國境線附近으로 行自動車로 [illegible]

板垣陸相參內

【東京電話同盟】板垣陸相은 十二日午後三時二十分 宮中에參內 天皇陛下께拜謁 所管事項에對하야 奏上 여러가지 御下問에奉答하고 御前을 退下하엿다

宇垣外相參內

【東京電話同盟】宇垣外相은 十三日午前十時 宮中에參內 天皇陛下께 拜謁 國境紛爭事件에關한 外交交涉의經過를 詳細奏上 여러가지 御下問에 奉答한後 御前을 退하엿다

蘇聯第一線陣地
食糧缺乏으로 飢饉狀態

【〇〇에서十三日唯井同盟特派員發】蘇聯第一線陣地의 悲慘한狀態는 投降兵의 供述에依하여도 分明한데 停戰協定이 成立된十一日午前十一時頃、張鼓峰山嶺附近에서 鐵條網을 끼고 나타난 蘇聯兵數名은 我兵에向하야 食糧缺乏을 呼訴 其中一人은 流暢한 日本語로『我等은 四、五日前부터 거의 먹지를 못하야 배고파견딜수업다 무엇이고 나눈것이잇스면 주기바란다』고請해왓다 我兵은 곳部隊長에 報告하야 若干의食糧을 鐵條網너머로 주엇는데 그들은 三拜九拜 再次 蘇領으로 들어갓다

"戰史上稀有한防禦戰" 尾高部隊長談

【〇〇에서十三日鈴木同盟特派員發】停戰協定第三日인 十三日張鼓峰과 마찬가지로 日蘇兩軍이激戰을展開한 沙草峰으로 最前線의猛將尾高部隊長을 訪問하엿다 戰歿한 戰野에는 가을草花가 피여잇서 花園과 가티美麗하다 그가운데 佇立한 將軍은 追懷가 끗이 업는듯이 다음과가티 旬日에 亘한死鬪談을 하엿다 三十一日以來 張鼓峰과 이곳에展開되엿든 激戰은 文字 그대로의 死鬪이엿다 날이갈수록 더욱 苦鬪하여지는 苦鬪이엿스나 部下가매우 奮戰하여주어서 고마웟다 世界戰史에도 드문 防禦戰을敢行、隱忍自重하야 잘 나의命令을 遵奉하여주엇든 部下이지만 感歎할밧게업다 나의身邊에 敵彈이 落下되여도 조금도 怯을 업섯지만 귀여운部下의 近處에 落下되는 것을볼때는 참으로 가슴이아펏다 昨日의現地交涉은 蘇聯의極東方面參謀長이 機銃을所持한約 一中隊를 이끌고 왓스나 我長部隊長은 拳銃도가지지안코 단한자루로 會見하엿다 그豪膽에는 敵도놀래엿든 모양이다 長部隊長은 木村長門守의意氣로 對하엿섯다고 感服하드라고말하며 最後로 今番戰鬪에서 일허버린 貴한犧牲者를 생각하고는 눈물을 먹음으면서 가슴벅찬데 오래동안 서잇섯다

"祖國官民에訴함"
上海事件一周年記念日
旅鮮中華商會聯合會聲明發表

旅鮮中華商會聯合會에서는 十三日 上海事件一周年을 迎하야 左의 聲明書를 發하고 蔣政權에 反省을 求하는 同時에 全朝鮮各團體와 連絡을 取하야 反蔣의 烽火를 들어 "打倒蔣政權"으로 邁進키로 되엿다

其行方은 何處요 國都南京을 버렷고 至今에 武漢三鎭이 또한危殆에 瀕하엿다 全面的抗戰의實力을 天地에 求코저하나 그方途가업고 四億民衆의 安泰도한 何處에서求하것슨가 山、廣西、苦慘代身에 어든바는 [illegible] 오직局面收拾에 거두라 抗日의鋼을 打倒하라 民敵蔣政權을 거두라 抗日의 나아가라 東洋久遠의 和平으로 敵이告하야 祖國官民에게訴한다

中華民國二十七年八月十三日 旅鮮中華商會聯合會

八面鋒

◇今日은 上海事變이 勃發한지 滿一周年。

◇그間 南京、徐州가 陷落되고 漢口도 累卵之勢。

◇上海서 漢口까지는 九百六十키로 支那의 心臟部요、長江의 最要地。

◇아직도 蔣政權은 降伏을不肯하니 漢口가 陷落後라야할터인가。

◇棉花共販價格의 基準을 變更하야 引上한다고。

◇元來 共販制度가 生產者인 農民보다 製造者인 紡績業者를 利롭게함이 만타는 批難도잇는 制度거니와、

◇더욱히 非常時에잇서서 生產者의 處地를 돌보아 基準價를 引上함은 當然。

◇等位査定의公正、共販時日、場所의 餘裕等 돌보아 또한 善策。

少年朝鮮日報今日發行

人事·集會

◇朴八陽氏(滿鮮日報編輯部長)▽入京人事次來社

板垣陸相 朝鮮軍司令官에謝電

【東京電話同盟】板垣陸相은 十二日夜中村朝鮮軍司令官에 對하야 今番의 張鼓峰事件에 關하야 如左한 感謝電報를 發하엿다

張鼓峰事件에 當하야 貴軍이國家의 가르키는바를 조차時局의 全般을 大觀 隱忍自重 防止에미처서 紛爭擴大를 防止하야 이에事件의 收拾을보게된데 對하야 深甚한感謝의 뜻을 表함

長·슈兩委員 第二次現地交涉終了

【〇〇十三日發同盟】日蘇第二次現地交涉은 十二日午前十一時부터 張鼓峰山麓의 防川項小學校에서 日本軍代表長勇大佐와 蘇聯極東軍代表 슈테른參謀長兩委員間에行하야 十一日正午戰鬪行爲停止以來 日蘇兩軍戰死者의死體搜査及그收容에 關하여는 雙方에서可能한限度의便宜를 줄것을約束하고 兩軍陣地內의 彼我死體等을提示한다음 最後에私的意見도交換하고 午後三時半 日蘇第二次現地交涉을 마첫다

蘇滿國境銃後佳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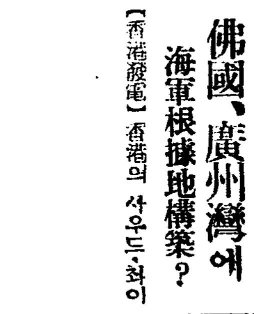
【〇〇에서同盟特派員發】國境防守의 第一線에서 軍國美談의 一意味의 佳話를 發하엿다 植田關東軍司令官에 對하여도 [illegible] 時에 戰病에 넘어지고 傷病兵에對하야 特히深甚한 敬弔의意를表함 [illegible]

海軍精銳百餘機 武漢三鎭을猛爆

【〇〇十二日發同盟】十二日馬野爆部隊는 松本兩指揮官이 引率한 我海軍航空隊의精銳百餘機의 一大空中艦隊는 武漢三鎭上空을 全翼覆下에 制壓하면서 一大編隊陣으로써 十數回에亘하야 旋回飛翔을 하면서 地上의敵軍을 恐怖에陷入케하엿다 먼저 漢口上空에到達하자 이에對하야 相當히 猛烈한 對空砲火를 我機에 集中하여왓스나 이때機影을 나타내인大編隊陣에威脅되엿든지 敵地上砲火는全혀沈默하고말엇다 이사이에大空襲部隊는 爲先軍需品及 敵輸送部隊가充滿하여잇는 京漢線漢口停車場에 〇〇個의 爆彈을投下 全彈이命中되여 停車場及附近倉庫群一帶는 火炎의바다로化하야 敵砲彈、火藥類의 爆發이 繼續되고잇서서 火災는 노피上空의 我機에까지達하는 凄慘無極한場面을 展開하엿다 大空襲部隊는 이黑煙을뚤코 果敢하게도 高度를나추어 漢口上空을 旋回 通過한後 다시武昌을攻擊하야 粤漢線終點驛前車行營及紗局等의 軍需品工場을 爆擊하고 또敵防備軍司令部를 粉碎한後繼續하야 漢陽上空을돌고 殘存의 砲臺를 爆擊한후 흥흥한命中彈의 跡痕을내려다보며 武漢三鎭上空을 旋回飛翔하야 全機無事히 歸還하엿다

간질 『경련』을고칩시다 [illegible]

強性強精藥 性器短小와精力衰退에



清導補腎丸 六十日分十圓 早漏防止

太星莊藥房 振替京城二八九〇四番

百補丸 不老長壽 春回精強 更少幸藥 平和堂 一劑十圓 京城堅志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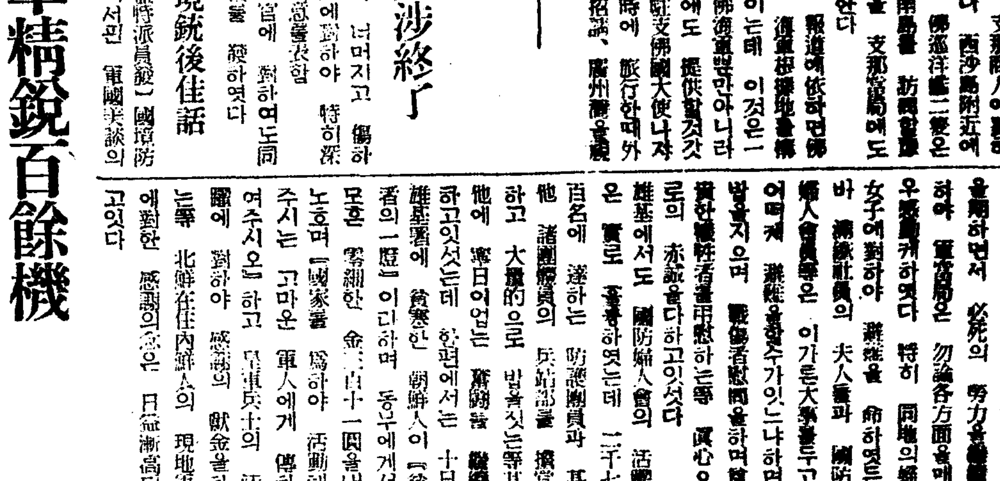
天安醫院 院長 李任在 X光線 人造太陽燈 入院室完備

말더듬이 朝報案內 訥言專門矯正院

募集 旋盤職工及見習生募集 旋盤現場指導員招聘 朝鮮製釘工業株式會社

仲居募集 朝鮮料理 國一館

內勤待遇採用 板谷生命朝鮮支店



時間正確 鐵道省御用の ウオルサム エルジン 十ケ年保險付 高級腕 瑞西製 時는金이다 市價三分ノ一

京城高等簿記學院(後期) 中等豫備專修學院 啓明中學院生徒募集

神經痛에 ネウロジン

諸官省拂下品 中古加工品の大安賣 黑色防水布外套 黑防水布レンコート 紺小倉詰襟服上下 黑作業服上下組 改造編上靴

陸海軍·拂下革靴の大販賣 海軍水兵型黑革短靴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卸問屋 松山合名會社

全朝鮮主要都市 家賃實情徹底調査

時局을憑藉하고無理引上이盛行

總督府、時急抑制策講究

전시제 체제하의 주택문제는 식량문제와함께 중대한 문제로서 경성을위시하야 조선에각주요도시에는 설상가상으로 집세가 더욱더 올라가기때문에 도시인들은 이중의곤난에서 신음하게되다 총독부 사회과에서는 각도시의 세시집을자들을 단속하야 앙악리에 무리히 인상하는 집세를 억제하고 잇스나 물까등귀를 기화로 비상시국을 방자하야 비합인상을 의여하게 계속하고잇스므로 다시 각도시의집세 러세 방세등의현상을 면배히조사하야 전세억압대책의 참고자료로하고자 오는지월일을 기하야 전조선 주요도시의집세 러세를일제히 조사하기로되엿다 이와가려 조사하야 저당하여제 하는당국 방침을 저버리고자제(自制)하는 섬의가 보이지안는 때에는 다시강력한 수단으로써 연앙을 장행하기로된것이 총독부당국의 제이단의 방침이다 그리하야 사회과에서는 이미그준비를 며개마지엇스므로 방금동경(東京)에 출장중인 유생사회과장(柳生社會課長)의귀임을기대려 일간현의정을한후 곳각도지사에게 통첩을발할모양이다

조사에대한 항목적내용이북가옥의구조(構造)간수 보증금 권리금 전세비 건축연월일과건축당시의 러갑 계약경신에의하야 인상된 전세 러세등집여관목으로서 느저도 오는시월중으로 조사를 요할예정이다

時局對策調査會 不日中委員任命

전시체제하의 비상시국에 대처하기위하야 총독부내에 설치하기로 결정된 시국대책 조사회(時局對策調査會)최령안(勅令案)은 지난십일각의에서 이미통과되엿스나 위원의 인선이아직전부 결정되지못하얏스므로 그발표를 연기하고 잇는데 회장은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으로위원은 총독부각국장 민간유지등 약팔십명으로 방금인선을 급히하고잇는중이므로 불일간 내각(內閣)으로부터의 정식임명을보게되는동시에 전반적정식발표가

牛步的"勞賃昂騰"

六月中全朝鮮九個都市勞働市場의調査

比前年同期一割內外가上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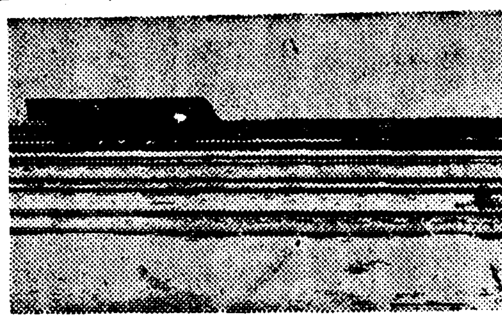
지난유월중 경성 대전(大田) 목포(木浦) 대구(大邱) 부산(釜山) 평양(平壤) 신의주(新義州) 원산(元山) 청진(淸津)의 구개도시의 노동자의 임은(賃銀)을 조사하야보면 내지인의 조사종목 삼십초중에 전월에비교하야 양등한것이 십일종이고 저하한것이 사종 그대로 보합(保合)되여잇는것이 십오종목으로 소화십일년평균을 기준으로한 지수(指數)총평균은 일백구십이든 그지수 총평균은 엽백십륙 『표』가등귀되여잇고 전월에비교하면 일할삼리가 양등되여잇다 그리고노동자별로보면 숙련노동자는 전년동월에 비교하야 오분사리가 전월에비교하야 유리가 양등되고 숙련노동자 아닌것은 전년동월에비하야 사분일리가 전월에비하야 일분일리가 양등되여잇다 조선인은조사종목 삼십일종중 전월에비하야 양등된것이 십오종이고 저하된것이 삼종목이며 보합된것이 십삼종목으로 그지수 총평균은 전년동월에 비교하여보면 일할삼리가 양등되고 전월에비교하야 일분오리가 양등되여잇다 그리고 노동자별로보면 숙련노동자는전년동월에 비교하야 일할오리가 전월에비교하야 일분이각각양등되여잇스며 숙련노동자아닌것은 전년동월에 비하야 일할이 또전월에비하야 어북구리가 각각 양등되여잇서 모두양등일로를걸고잇는 비상시노동분야의호현상을나타내고잇다

觀光映畵朝鮮篇 撮影에着手

국제관광국(國際觀光局)선전영화촬영대(撮影隊)고교(高橋)사무관등일행칠명은 오는십오일에 동경을출발하야 십칠일에 부산에 어르러 제일권 조선편(朝鮮編)의촬영에 착수하기로되엿다 부산 경주(慶州)를 거처서 이십일일에 경성부근 이십오일에 평양(平壤)부근 구월일일에 봉천(奉天)에이르러 제이권 만주편(滿洲編)의 촬영에 착수할터이며 또 구월이십일부터 제삼권 북지편(北支編)의 촬영에착수하야 북경(北京)대동(大同)천진(天津)산해관(山海關)등을 촬영하고서 시월십일부터 십오일동안 금강산을 바일예정이라한다

처음에는 내지 조선 만주 재나를연결할 관광영화를 제작할 계획을세우고 그뒤 여러가지전세를 조사중이엿더바 중지(中支)방면의 회측상례가 아직 선전영화에 적당치안흐므로 그것을단념하고 새로 『조선 만주 북지의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관광선전영화를 제작하기로 변경한것이라한다

伊艦隊 今日拔錨、上海로



구일에 인천(仁川)에입항하야 경성인천각방면과 교환을한 이태리국동양함대(伊太利東洋艦隊) 일등순양함(一等巡洋艦)『몬테콕크리—』호는 십오일에 떠날예정을 변경하야 십삼일오전에인천을떠나 상해(上海)로 향하엿다 그리고동순양함과 교대해서 입항할예정이엿던 동함대『레판드』호는 사정으로 말미아마 입항치안키로되엇다

伊勢神宮中等庭球 大邱農林組優勝 正金、張組優勝

【宇治山田電話同盟】伊勢神宮奉納庭球大會第四日은 十二日에當地에서 擧行하얏는데 中等學校優에 出場한 董正中學 金成學 張在潤組는 決勝에들어가 大邱農林 權重文、申宇善組를 四對一로이겨 優勝하엿다

【準決勝】

正董(金成學 張在潤) 6—5 新商(金泰詰 大西)

邱農(權重文 申宇善) 4—1 京中(加竹 內藤)

【決勝】

正董(金成學 張在潤) 4—1 邱農(權重文 申宇善)

每杯日濠戰開幕

【모르런올十二日同盟】 데杯에 메리카손 決勝戰…日本濠洲間의第一戰은十二日午後二時十五分부터 當地크리켓그라운드에서 擧行하바 一對一로되여 興味는 十三日의 複式戰에 集中되고잇다

日本1 濠洲1

中野1 (7…1 6…9 3…4 …6) 3 퀴스트

山岸3 (7…6 3…4 6…5 …6) 1 후로미치

女子卓球戰況

朝鮮卓球協會主催의 第五回男女卓球選手權大會第一日의 女子部는 十三日午後一時半부터 府民館에서 열린바 當日의 成績은 다음과같다

李寶蘭(同德)3…0 澤 村(一女)

高賢英(京保)3…0 安 倍(二女)

朴良順(淑明)3…0 藤 黑(一女)

高貞子(京保)3…0 橋 本(一女)

崔貞淑(同德)3…0 韓福任(向上)

朴田賀(女商)3…0 野 尻(二女)

尹貞姬(京保)3…0 沈瓊順(淑明)

豊 見(一女)3…0 崔貞淑(同德)

金德愛(向上)3…0 前田幸(二女)

鄭然熙(同德)3…0 安順寶(京保)

李金子(淑明)3…1 崔和英(向上)

崔納順(同德)3…0 前田榮(二女)

全貞淑(向上)3…2 鄭金順(女商)

金麗淑(淑明)3…0 朴壽賢(女商)

崔明淑(女商)3…0 小 州(二女)

橫 山(鐵道)3…0 李貞順(向上)

甲子園中等野球戰績

大每主催의 第二十四回全國中等學校野球大會第一日은 十三日午前九時부터 阪神甲子園球場에서 各地代表二十二個校가 參加한가운데 開幕되바 當日의 戰況은다음과같다

【第一回戰】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北海中學	0	0	0	0	0	0	1	0	0	1
高崎商業	0	0	0	3	0	0	0	0	A	3A…1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日大三中	0	0	0	0	0	0	0	0	1	1
關下商業	2	0	1	2	0	1	0	1	A	7A…1

早大排球二勝

朝鮮排球協會招聘의 對早大排球戰 第一日의 戰績은 다음과가티 早大가二戰二勝하엿다

早 大2 (21—10 21—2) 0 遞信

早 大3 (21—14 21—21 14—20) 1 全京城

모던型貨物車

漏大貨物輸送에便利토록 鐵道局서新造運轉

철도국에서는 최근에 조선의 공업이 발전됨에따라 용적(容積)과 중량이 굉장히 큰기계류의 수송이 무척 만흐므로 요지음에 새로 어런『괴물』하가장차러가업고 바다에나와 화물차(無側低床車)한대를 새로제조하엿다

어것은 저난이십륙일에 서운용해보험파 애가한바 외가려 조흔적덕양에엇스므로 인천으로부터 『괴대한물』을 실어서처음으로 운행하기로 되엿다하며 그구조의 특징을보면 차체중부를 낫(低)게하야 적부하(積付)하기조케되엿다

電車警笛을團束

本町署、京電에警告

철도로제조하여다 『저상부』의바닥은기리 짤미돌 폭이미돌 구분으로되여잇스며 그 『저상부』에 오십키로의 화물을 멍고하부게로서실을수 잇게되엿스므로 용적및 중량이모두큰 화물을실고서 『턴넬』이나 다리나또는『커브』를 통과할때에 지장이업고 도화물을 실거나 내리는데도일층편리도하게되엿다한다 (사진은새로된화물차)

려가지 소음으로인위생상으로 커다란 영향을주는것이라하야 머리부터 경기도전반에긍하야 설서된공장지(騷音防止)는 실시후 얼마안되여서 이상이생기엿다 즉 자동차는전기『크락숀』을 레지하고 고무나팔을 대용하야서 비교적적음의효과를 갓게하는동시에 실시전에 연려되던사고가도 부지럽(쉬정으로 압니와 경성시내교통기관으로서가 장중요 한전차는 아모리화의무가지 조금듯이 소리를적게하라고 애를써보앗스나 도무지효과가 나타나지안흘뿐아니라 도리어이전보다 더큼고 조포한음향으로 변하고잇서서 일반의비난을받게되엿스나 그래서 요지음본정서 보안게에서는 경기도보안과의 주의에의하야 경성전기회사전파에 그사정을조사해보결과 현재『쏙기』차입배열대산대는 어무리하야도 음향을고칠도리가업시 박으면 막을주록 음향이노파지고잇는것이 판명되엿스므로 경전에 문제의백열다섯대『쏙기』자의 개량을명령하는동시에 팔월말일의 기한부로실행하도록 엄중히경고하야다

大連에暴風

【大連十二日發同盟】관동주(關東州)일대는 십이일오후다섯시경부터 풍속최고삼십오미돌의 폭풍우가업습하되자 더욱 사나위저서 오후여덜시반엔 정전이되는등 시내에서는 암흑화하고 교통은 일체두절되여서 대련부두와 시내각처에 상당한 피해가잇슬모양으로 자세한것은 방금조사중이다

愼航空事業社 新銳機購入

신항공사업사(愼航空事業社)에서 경성광주(光州)간의 새로히항공로를 개통하게되엿다함은기보하엿거니와 이항로에 쓸전용비행기를 작십이일에 동경으로부터 새로히구입해드렸는데 어비행기는 『비—치‧크라프트』식미국제의경쾌한장치를 한것이라한다

라디오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幼兒童話 ▲六時二五分(廣) 鄕土一夕話 ▲七時三〇分(東) 國民歌謠 ▲七時四〇分(東) 講演 ▲八時(東) 바이올린과기타— ▲八時三〇分(東) 鄕土淡音 ▲九時五分(大) 浪花節

第二放送 ▲午後六時三〇分노레工夫 朴景娥 ▲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七時 趣味講演 李秉岐 ▲八時 라디오時局讀本▲八時三〇分 新民謠 ▲八時五〇分 라디오小說 高鈴蘭 ▲九時一〇分 加耶琴併唱 ▲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

恒久化하는 勤勞報國

學期中에도實施

心身鍛鍊의一元化

비상시국민의 심신(心身)단련을 강화철저시키기위하야 총독부학무국에서는 이번하기휴학을이용하야 전조선남녀각학교(대학 전문학교、중등학교、소학교)학생、생도들을총동원하야 근로보국(勤勞報國)에활동케한결과 첫지 시에와 강화철저하기위하야 그지도、감독、운용을 도모하는 상설기관을 조성하기로되엿다 학생、생도들은 금년에는 처음이므로 하기휴가를 이용하얏스나 명년부터는 한달에한번 혹은 두번씩 정기적으로 근로보국에 동원하도록하며 또지방청년단 전홍회 정신총동원연맹부락반들은 학생、생도들보다좀더 그회수를 자주하야 심신양면을 다련케하는동시에 생업판별을 조장하는 가외일석삼조가티 근로보국운동이다 그런데 이와하는 보국운동을 임시적에 서 항구적으로 철저시키는 동시에 그지도、감독、운용에대한 상설기관을 조성함에는 상당한 예산을 요하게되므로 명년도예산에서 총동원(町、洞、里)부락반(部落班)등을 근로보국에 종동원하야 어하가든 근로보국운동에 여근고잇는동이므로 학국국에서는 어부러기어허실현하도록 활어이데 금후로는 사회지도방침을 여근로보국운동과 정신총동원으로써 전반적으로 통일하야 종래의다기(多岐)다단하던 것을 일원화(一元化)하기로되엇다

嚴妻侍下의鬱憤

매맞다못해離婚訴

『남편지는 여자와가치 살수업소』하는 전어호소송의 소장에의하면 원고 부내북아현정(北阿峴町)산(山)일번지 삼십삼호 유배근(柳培根)은 소화어년팔월 전북전주부 풍남정(全州府豐南町)송림필(宋必)과결혼하야 그간아들까지 나코사러오는 처지인데 원고가 작년구월에 매업을 하자고 하엿더니 『너는 무능자다』『애비신세만지는달편녀석이다』고욕설을퍼부어가정에 풍파가그칠날이 업섯다 그런데 금년칠월이십삼일 부부간 사소한언쟁끗테 피고가 원고를 길로들고나와 발길로차고 옷을찍즈며 망신을 시켯슬뿐아니라 최근에는 죽이다고 위협하야 가치살수가 업다는것이다

經濟強調週間

物價抑制勵行

價格表示狀態를調査

총독부식산국(殖産局)에서는요전에 폭리취체령을 개정강화하야 물까등귀억제에 더한층주력하여 오는이십일일부터 오는이십칠일까지 경제전강조주간(經濟戰强調週間)동안에그개정폭리취체령을 일반에게 주지철저시켜서 물까등귀억제에만전을 기하기로 결정하야 우선전조선각지의 각격표지상황을조사하기로되엿다 이리하야 어떻을 십일일 각도지사에게 통첩하였다

自轉車專門賊

종로경찰서에서는 면질전 고향을떠나 금천군 금천면(金川郡金川面)에두고 주소부정의무사 홍근식(洪謹植)(二〇)이란 사나히를검거 엄중취조한결과 그는금년오월에 상경하야 조선은행전을위지 하야 자전거를 훔처다고 자백하엿스므로 여죄를추궁중이다

海內實情의再認識

在外朝鮮人에게 徹底토록

總督府、指導方針決定

총독부에서는 저번에 재외조선인의 지도방침에관하야 관계부와협의하야 적극적으로 조선관으로하여금 여러가지로 현의의 실상을 재외조선인에게 주를 시켯섯는데 재외조선인의대부분은 현재의 조선을 옛날조선그대로 생각하고잇서서 조선총치의 실상을알지못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이적은 현상이므로 총독부에서는 이번중앙정로 가는 여객은 남양역(南陽驛)에서 바꾸어타야된다한다

(前文: 여잇는것이 십오종목으로 ... (중략))

大規模의純綿密輸

經濟警察總動員嚴重搜索

【東京電話同盟】지난달십구일에 상공성(商工省)에서 면사포(綿絲布)비상관리령을 실시하자 영판(大阪)에 민접한대판(大阪)의 모면사포도 매상하는당국의눈을속여 수백만원의 순면을모기선회사소속인사、오천도합의 회물선에다 실고서 경계가비교적적은곳에다 끌어올리려다 경계가 엄중함으로 목적을달치못하엿는데 엄이삼개월을 경과한오늘에도 금단의면포를실은 동선은 당국의눈을속여유지로 끌어올리려고 삼일사보 면회물선에 실은물건을난우어서 조금식 끌어올릴 염려가잇음으로 로경제경찰에서는 총동원하여리 호내해(瀨戶內海)를 중심으로한 여러항구에수배하고 괴화물선의 정체를찻는중이라한다

廢物回收의組織網擴充

넉마組合指導補助

中央機關은不設置

폐물을거두어서 다시이용하도록하기위하야 폐물의회수조직망을 확립하고저 총독부에서는넉마업자의조합조직을 준비중인데 대체로각도별에의하야 넉마업자의의미대로 조합을조직시키고 소독설비라든지 보관창고의 보조를할방침이다 그러고 넉마업자들이 거두어모흔폐물을『조선고무』『금속』종류등과 같은 조선안에서 다시편물수있는 것은 조합원으로부터 조선안공장에공급시키고 솜파가터조선내에 설비가업는것은 내지업자와 연락하야 어풍이시키도록하고회수를위한 중앙기관은 설치하지 않을모양이다

(『실화』라는월간잡지를 발행한다는데 장차는 제래의 장치래를 벗어난 새로운각도에서 사회의리면을 폭로해부한청다지로서 수입내로 창간호가발간되리라하며 경가는이십오전이라고한다)

羅津行旅客은南陽서乘換

불통중이던 북선선(北鮮線)철도 아오지(阿吾地) 나진(羅津)사이는 십삼일부터 개통되여열차를 운전하는데 아직은청진(淸津) 또는 회령(會寧)서떠나는 열차만이 운전하고 잇는중이며 경성서 나진으로 직행하는 급행열차는 도문(圖們)까지에만 운전하고잇다 그러므로 경성방면에서 나진방면으로

雜誌「實話」發刊

시내광화문통(光化門通)에구십팔번지에잇는 조광사(朝光社)편집부(編輯部)에서는

更生農家漸增

그러나轉落農家도아직만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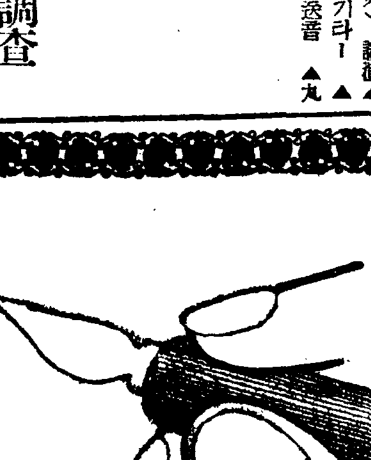
最近三年의農村趨移

조선의 전농가호수의 약팔할을 차지하고잇는 소작농과자작겸소작농 약이백오십여만호의경생(更生)과 전락(轉落)의 상황은 농정(農政)의 가장중요한문제로서 이에대하야 당국에서는 고심경영을 거듭하여오는터인데 이소작농과 자작겸 소작농의 최근삼개년간의 추이를 조사한바에의하면 다음과 두가지로 조선농촌의 궁원상을 말하고잇다 그러나 소화십년에는 자작에서 소작에 전락한것이 일만이천구백여이고 자작겸소작으로 전락한것이 일만이천여호이여서 이것이 자작겸소작농에서 자작농으로 개생한것은 이천팔백여호 개생한 가가 오만이백팔십여호로서 전락호수가 일만삼천육백사십이호 이어서 전락호수가 삼만사천팔백여호가되며 개생한것은 일만이천팔백여호로 되여잇고 개생한것은 작에서 소작으로 전락한것이 일만이천삼백사십여호이고 자작겸소작으로 전락한것이 삼천팔백삼십여호 이어서 전락한것이 그중에서 일만이천여호이다 또 개생한것은 소화십일년에는 자작겸소작으로 전락한것이 천이백구십호이고 소작으로 전락한것이 팔천구백칠십호이다 그리고 전락한것은 사천이백사십여호 일만이천여호로서 전락한 농가수는 삼천이백여호이고 소작에서 자작겸소작으로 개생한것은 삼천칠백칠십삼호로서 개생한수가 전락수보다 초과하여 이것이 소화십삼년도에는 전락된것이 일만사천팔백이십칠호이고 개생한계가사 이천이백여호가되어 일만이천여호의 전락호수가 일만 오천여호 이어서 이만 사천여호가 되엿다 이렇게 전락호수가 개생호수보다 적게된것은 농촌진흥운동(農村振興運動)의 결과라고하겟다

色鉛筆

여름과실로서 참외처럼 만히먹키우는 과실이업을것이다▲더구나 조선사람만큼 참외를 분량적으로 만히먹는 민족은 세계적으로도 업을것이다▲어느나라사람이라도 참외를먹을때는 한개를 멧쪽씩나누어 한쪽씩먹는것이지 ▲우리네처럼 사람머리만큼 한참외를 통재로 깎가들고 참외등통에 코끄를 폭폭 잠거가며 가장남경적으로 먹는법은 업을것이어요▲더구나 한자리에서 내댓개를 예사로 먹는법도 업을것이다▲식물성(植物性)생식(生食)은 세계적으로 제일이라할수잇는 조선사람으로서는 역시 무방한노릇▲만히먹고 잘익어고 건장해지고 부러나간다면 작히 조흘 일이라마는 어가지 보배로운 선천적(先天的)저항력을 잘못이용하야 과식을하고 배이리를한다 위확대(胃擴大)를 만들다는것도 조선

外塗內治藥



アンチフラミン

本劑는 肺炎‧感冒‧氣管支炎‧咽喉炎等各種炎症뿐아니라 神經痛‧胸痛‧肩胛痛‧腰痛等에도 卓効가잇는 外塗內治(겻트로발러內治하는)藥으로서近日가티氣候가 不調한때에는 더욱 어느家庭에나 常備해야될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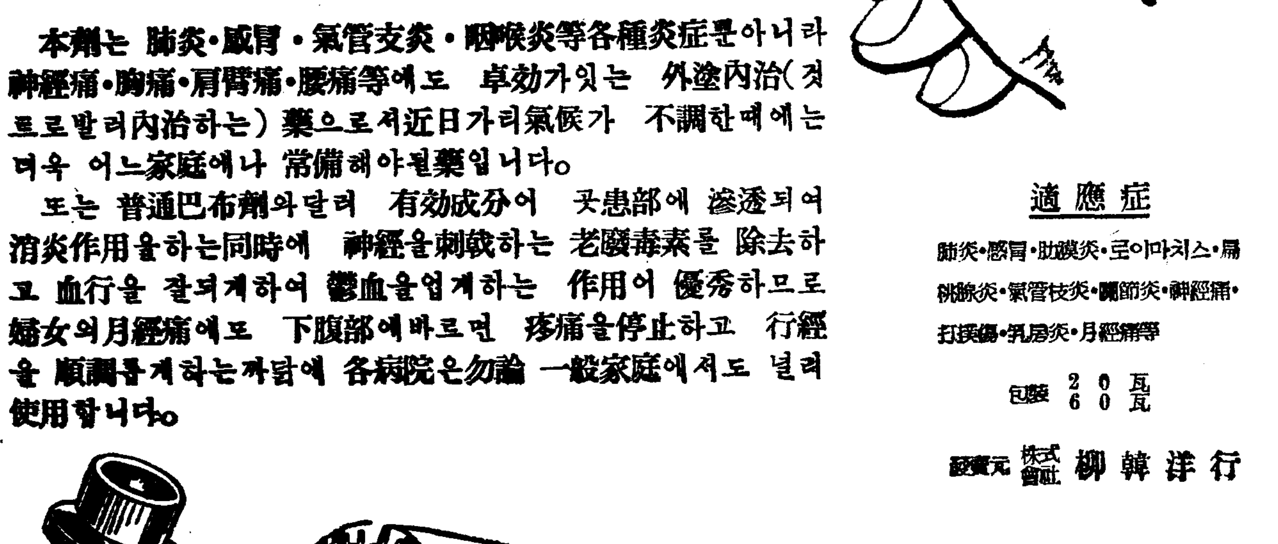
또는 普通巴布劑와달러 有効成分이 곳患部에 滲透되여 消炎作用을하는同時에 神經을刺戟하는 老廢毒素를 除去하고 血行을 잘되게하여 鬱血을업게하는 作用이 優秀하므로 婦女의月經痛에도 下腹部에바르면 疼痛을停止하고 行經을 順調롭게하는까닭에 各病院은勿論 一般家庭에서도 널리 使用합니다。

適應症

肺炎‧感冒‧肋膜炎‧로이마치스‧扁桃腺炎‧氣管枝炎‧關節炎‧神經痛‧打撲傷‧乳房炎‧月經痛等

包裝 20瓦 60瓦

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鳥獸高價買入 山口屋小動物園 京城府下谷入谷三九○

最新強壯劑 フュロトン (價格表請求次第迅速進呈)

本店釜山、支店光州 電話長一、四五七番

紡績落棉 製綿原料 蒲團綿製造元

卸商 池漢柱製棉所 仁川府宮町一七

天安支局 電話開通 二三三番

綿大投売

斷然躍進하는 平壤秋大競馬會 八月廿、廿一、廿二、廿三、廿七、廿八、廿九、卅日 出走見込百八十頭 社團法人 平南競馬俱樂部

新進名唱 金演洙 吹込 新人出來 판소리에 빅타—레코—드

離別後의 하로가 꿈 KJ一二九六

토끼배갈르는데 (上下) KJ一三○八

皐天邊 皐一節痛哭 KJ一三二三

새로운新人의新發賣盤—(一枚一圓十錢) 京城光化門通 朝鮮新聞社 高翁와同勞唱

原因을明白히한 中風‧高血壓‧神經痛 不治아니다 今津博士의훌륭한研究

(研究中의今津博士)

專門醫學博士와가티 어病의原因을徹底的으로 研究한結果 今津博士는 前記의 患者에分讓해서 服用하게하는 同時에 藥을조제하고 全國各地의同病者들로부터 大端히感謝하고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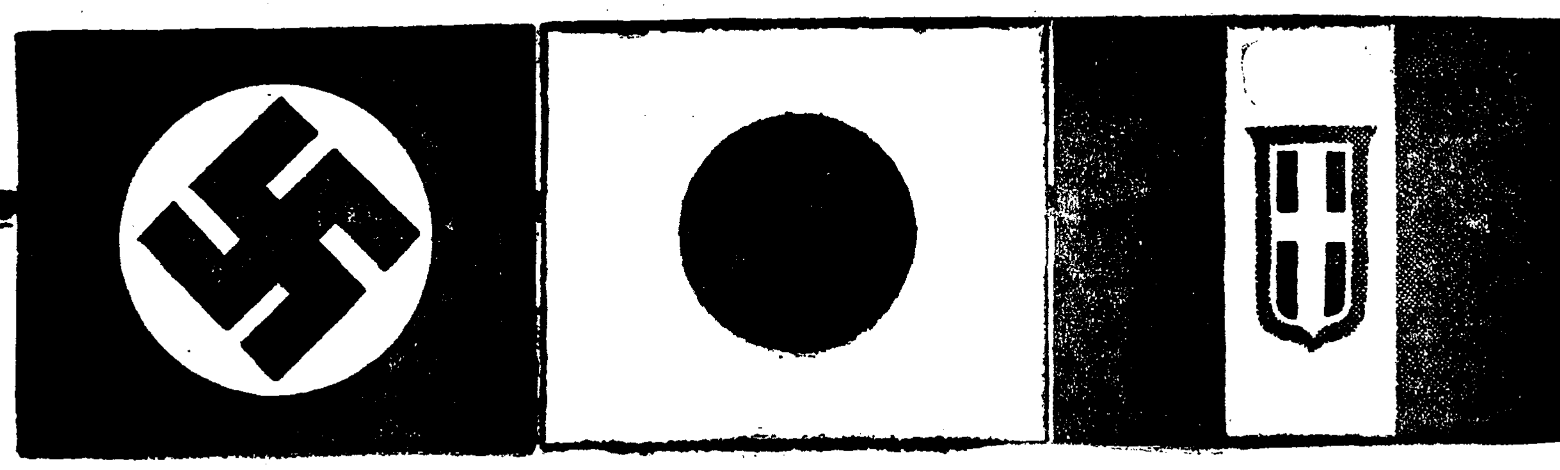
血液의 混濁을 除去해서 淸淨케하고 循環을 조케하면 낫는다 決코 不治가아님을 確信하고 苦心한結果 植物로된 强力한 淨血藥을 發見하엿습니다

酒煙草 淋病、便秘、偏食 胃腸病、心臟病、胃酸病、腦病、過勞、心配、大傷又는大患難產等으로血液이濁해서이러나는것으로 가볍 喘息 狹心症 足痲痺 動悸 耳鳴 頭痛 肩凝 手足痺의痛 不眠 神經衰弱 便秘 卒倒 어지럼 浮腫

今津研究所 大阪市 阪急藥局三國 振替大阪一四五 今津博士 學術研究와 多數實證을 보아도 한 淨血療法養生法을 가르키고 一般同病者에게推獎하는바입니다

補精腎氣強壯劑 海狗腎 朝鮮釜山府草梁町 大洋貿易社 說明書請求次第無料進呈

少年단 十錢



昭和의常識

밭거지는 二枚綿備헤다나는것이 조
타 夏節에남으진보 防暑에쓸때 퍼
펴오수건을끄내는것 보기여거북한일
物건거 자외롱佗險한것을 저질을때
는 미를지말고가만이가서 다른데
를로 빨리게하고 가만이빼는것이조타

只今은全國民이瞬間도이저서는아니되는

『防共』의精神的強化와

『体育』의徹底的鍛鍊!

이두가지생각을強하게銘記하기爲하야는仁丹에서

今般、新發賣하는 **防共容器、体育容器**

를恒常携帶하야仁丹의活用하야을너이非常時局을

이기어나가주시오

今夏의 消化와解毒 銷夏에防疫에 仁丹은

반드시이容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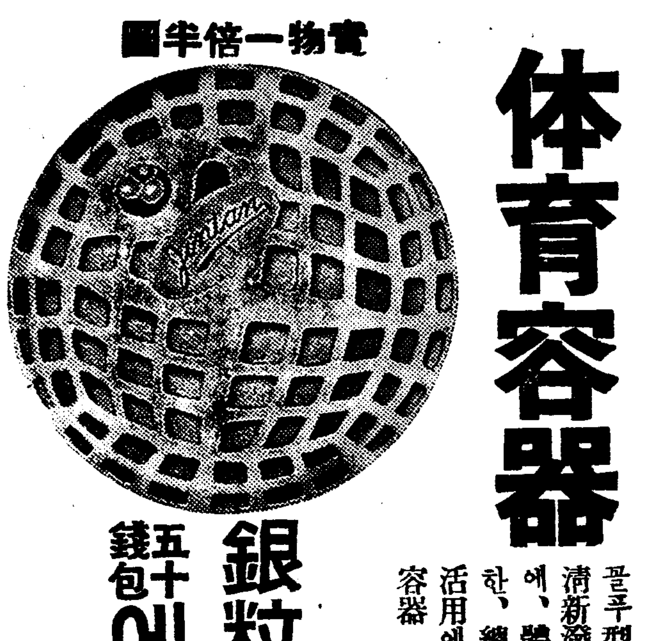
實物一倍半圖

防共容器

크로ー므製、世界地圖의意匠으로서 산뜻하고高尙한中에 重大國策을銘記케하야 엣지안토록하는日本人必携의時局容器로 大好評

銀粒仁丹 五十錢包에添附

實物一倍半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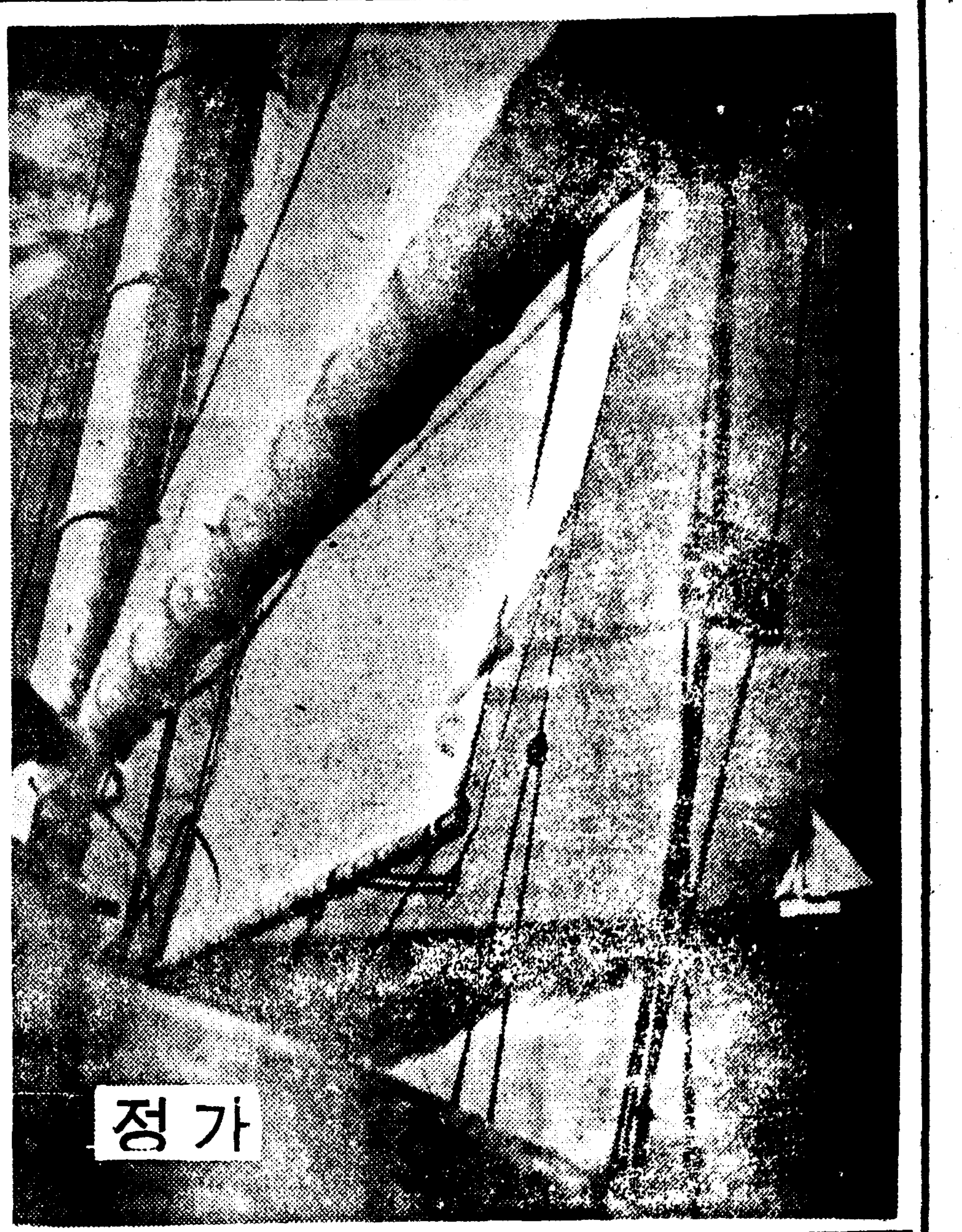


体育容器

골푸型、크로ー므製、清新潑剌한 感覺中에、體育精神이橫溢한、總動員下의仁丹活用에가장相副한新容器

(地色、草、靑、朱、紫의五種잇슴)

銀粒仁丹 五十錢包에添附



가정

섯불니알기쉬운 유아의소화불량

잘못하면큰일납니다

─치료중에는감식이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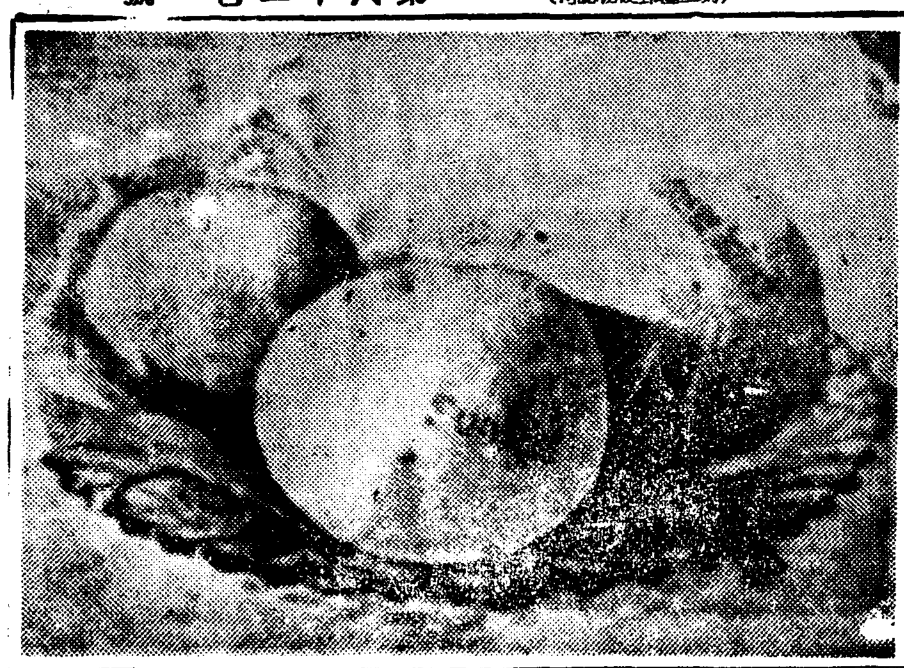
아이들이 소화불량증에걸려서 설사하는것쯤은 적리나 폐염에걸린것처럼 그어머니들이놀나지 안습니다. 아마 소화불량 이란것을 보통잇는일처럼 생각하는까닭이겟지요. 『애들이 그저 그러치』─이러케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보통소화불량증이 생기엿다는것하고 아이들이 소화불량증에 걸렷다는것하고는 대단히다릅니다. 웨그러냐하면 어른에게잇서서는 그러케쉽게 죽는병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대개병으로 죽으니까요. 유아의 태반은 어것으로 사망하는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소화불량에 걸리는것은 대개계절의 관계도잇지만 제나히에 꼭알맛는 젓과음식을 적당히먹이지못하는 까닭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젓을먹는아이들보다 우유나 인공영양으로기른는아이들이 더만히 걸리는것입니다. 예를들면 여기에 생후사오십일에 유아가 잇다고합시다. 아이들에게 현미가루가 조타고해서 우유에다어 섯거먹여봅시다. 그야 현미가루가영양가치는조치요 그러나 그저수자적으로 칼로리가 늘엇다고해서 그아이가 이것을 다먹고 소화하느냐하면 결코 그러케되는것이 아니고 도로혀 탈을 내고야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공영양이 어려운것입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에 걸닐때는 누구나 고치기 쉬운병으로 알지만 사실 병이 중해노흐면 좀처럼 완전히 낫기어렵습니다. 처음 경증일때는 열도업고 기운도 쇠약해지지 안흐니까 푸른똥을 누거나설사가나거나 어머니들이 별로 걱정하지안습니다. 그러나 소화불량이 지쇠면 아모레도 낫지안코 흔히죽기쉬우니 처음시작에 이내고쳐주어야할것은 어머니된이의크다란책임입니다.

소화불량의 치료법은 무엇보다도 감식(減食)입니다 감식을하되 웬만큼해가지고는 효험이업스니 이아래그자세한것을쓰겟습니다. 가령 증세가 가벼운데로부터 말해서한주간쯤 길러된데는 젓을보통때보다 삼분의일만 먹이되 한회에 삽십그람식 세시간마다주고 아조 중증이아이는 열두시간으로부터 스물네시간까지아이조 굶기는것이 조흡니다 그담에도 한회에 다섯그람내지 열그람식을 두서시간을 [illegible]할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하로에한 모를먹든아이가 소화불량에 걸려 감식을 시킨다고 칠흡먹는다면 그러케 분량을 감해가지고는 병이낫지안습니다.

이러케 아이들이 소화불량에 걸렷슬때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젓이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 벌서어머니의젓이 업서기때문에인공영양을 시킨것이속 모유가 잇슬리업스면 혹다른데서 어더먹여도 먹어야합니다. 남의젓을엇기는대단히어려운일이나 분량이 얼마되지 안흐니까 웬만해서 어더먹을수잇는것입니다. 이러케 어든젓은 한회에 五그람내지 十그람정도로두시간만큼씩 하로에 열번주면 넉넉합니다. 그런데 만일 남의 젓이 한꺼번에 오십그람이나 백그람씀잇는때는 한번끄려서 깨끗한병에너허 마개를 꼭해서 차게둘것입니다.



맛조고・약도되고 모만흔오렌지

오렌지는 비타민A・B・C가 다넉넉히잇습니다. 그러므로 영양파실노서는 진품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괴혈병(壞血病)에 대단히 조흔것으로 오렌지를 만히먹으면 그병의 예방도됩니다. 그리고 채소를 잘어더먹지못할때는 될수잇스면 어런과실을 만히먹는것이 조습니다.

오래동안 항해를하면 채소를 잘어더먹지못해서 그무서운 괴혈병이나 각기가만히 걸리게되는데 여기에 오렌지를먹으면 이러병들을 물니칠수잇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는 신맛이 그다지업고 단맛이 만키때문에 누구나 조와하는 과실입니다.

오렌지의껍데기에도 비타민이만히잇습니다. 이것은껍데기에 포함된 색소에 비타민이가잇스므로 이색소를 찌써도 조습니다. 그리고 껍데기에는 일종의 쓴맛이잇서 위의소화를 돕는 성분을 가지고잇스므로 위약으로 그껍데기를대려먹으면 효과가잇습니다. 더구나 이껍데기는 새것이나 오래된것이나 효과가 마찬가지입으로 오래동안보존해두고 써도조흡니다. 굴껍질을 말릴때는 그늘에말려두엇다가 필요할때 끄내서 대려먹으면 조흡니다. 그리고 그냥은 쓰고떫분맛이 나니까 설탕가든것을 조곰타서먹으면 아조조습니다. 그뿐만아니라 굴껍질은 짜서 화장수를 만들면 피부의 영양이됩니다.

우리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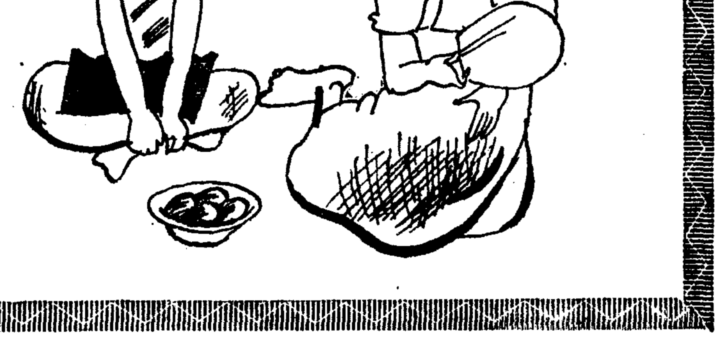
어머니 『날이 너무 더워서 음식이모두 상하는대 썩지안는 법이 업슬가』

아들 『왜잇죠』

어머니 『그게 머란 말여냐 학교에서 가르처데?』

아들 『썩기전에 다먹어버리면 되지안허요』

(글쓴사람 배막동)



여름 임부와유아의위생 ②

음식조심잘못해도 유산되는수가잇다

어린에는잘때배를가려줄일

女醫 李聖淑

임부(妊婦)의각기가 여름철에만흐며 그에따라 유아각기(乳兒脚氣)도 여름철에 만타는것은면저도 말햇지마는 각기에걸린어머니의 젓(乳)을 먹으면 반다시 그어린이도각기에 걸리게되는것입니다. 그뿐아니라어머니의젓속에『비타민B』가 조곰이라도 부족한상태에잇스면 유아는『비타민B』에대하야 대단히 예민함으로 모체(母體)에각기의 증상이 나타나지안흘때에도 벌써 매우중중의 유아각기를 이르키는수가만습니다. 그러니까 모체(母體)에 각기증상이 나타나지안혓다고해서 모체에도 각기병이업고 어린아이에게도 각기병이생길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고잇슬때라도 만약유아가 몹시보챈다든지 우는목소리가 쉬엿다든지 푸른똥을 싼다든지 젓을토한다든지 할때에는 유아는물론팔할것도 어머니와 어머니도함께 의사(醫師)의 진찰을 바더야할것입니다. 그래서 각기병인줄알엇슬때에는 빨리 적당한치료를 바더야할것입니다. 유아가 각기에 걸렷다고해서 갑작스럽게 어머니젓을 먹이지안코 우유나 또는 암죽가튼것을 먹이면 도리혀 유아에게 좃치못한 영양을주어, 재삼스럽게 딴병을 엇게되는수가 만흠으로 요사이는 어머니의각기가 몹시심하지안흘때에는 어머니의젓(乳)을그냥 계속해서 먹여야 할것입니다. 어째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어머니의젓을 먹든유아가 갑작이 우유를 먹게되면 그러치안해도 약해진 위장(胃腸)에 우유가 들어가게되면그때문에 심한소화불량증(消化不良症)을이르켜서 생명까지빼앗기는 수가 만키 때문입니다. 여름철의 유아는 흔히소화불량증을 이러킨다는것을 늦잇지마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젓을 그냥계속해서먹이시고 유아와모체의 각기를 철저히 치료해야 할것입니다. 요새는 각기를 근치(根治)할수잇는 조흔약이 만히잇습니다 각기병에 조흔약은 무엇무엇해도『비타민B』가 제일입니다. 『비타민B』의 주사약(注射藥)과 내복약(內服藥)은 어느약방에서든지 팔고잇스니누구나손쉽게 복용할수잇습니다. 그러나 치료보담도 예방이제일이니 유아각기에 걸리지안토록 어머니된이는 임신때부터주의해야할것입니다.

여행하는동안 땀에저른옷은 이러케빱시요

감과빗갈따라다룹니다

명주나 비단옷은 땀에배면그자리가노라케되여가지고비누로 빨내를하면더구나 노타케됩니다. 그러므로 약간 미지근한 더운물에 암모니아수를 조곰타서 그물에 약삽십분간 당거두엇다가 땀배자죽이 빠지는것을보고 끄내서 물에다 빰니다. 비단이아니고 무명이나 그냥 뵈가튼것은 표백분 적은사시로 둘쯤과 수산(蓚酸)을 적은사시로 하나를 물한되가량에 풀어놋습니다. 그런다음 빨내를 그가운데 약십분가량 당것다가 끄내 빨면 조흡니다.

지짐질남비 길드리는법

지짐질 남비를 새로사거든 그대로 기름을 무처지도록 [illegible] 불에 올려노아서 까마케될때까지 태우십시요. 그러케하면 이상스러운냄새나는것도 업나고 남비가 오래갑니다. 그리고 쓰고난담엔 녹이나지안토록 뚜껑을 덮고 안에 기름이 꺼머케 타붓헛다하더라도 솔로 한번 닥거쳐야 아니되웁니다. 는때에 비누를 무혀가지고 행주에 무처서 씨지면조흡니다. 그러담엔 불에 노아서 물끼를 업시고 기름을 약간발너서 두면조흡니다 거죽은 때때로 솔노 문질러 씻지면 조흡니다.

長篇小說 愚氓 【106】

朴泰遠 作
洪祐伯 畵

山속의妖婆(6)

노파는 다시 어어서 말하엿다.

『집에 록아 가거든 꼭 영감에게만 내말을 이르시요. 내가 한말을 고대로 일러주시요. 꼭 영감에게만─, 일체 외인에게는 말을 마오.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또 한어못 절친한 사어라도 말을해선 안되징.』

『네─, 네─. 아모에게도 말슴을 아니하지요.』

『남에게 말을 햇다가는 일껀 차례올 복력을 고만 일허버리징. 영감에게 그길 일러야 하오.』

『차차 알때가 오징. 새우재서 그믐날밤 만난 이가 지시하는대로만 하오. 지시하는대로만 하면 자연히 딸자식 팔자가 펑풍이요.』

다음에 노파는 다시 한참말을 끈코 장씨의 얼굴을 뚫허지라고 보앗다. 그리다가 문득 탄복을 마지 안는듯한 가만한 한숨조차 쉬고

『딸이 큰딸이 참말 귀하게되지. 귀하게 되고 말고……. 이제 그 딸의 덕에 온집안 식구가 영화를 누릴게요. 몽둑이 다려도 저 누어 떡에 고치게 되구……』

예까지 말하고, 노파는 문득 고개를 돌려 굴밖을 멀리 바라 보며, 거의 혼자말가티 중얼거린다.

『허지만 그믐날 밤에, 새우재서 좀처럼 젊은 사람을 맛나지 못하여도 허사요, 또일건 맛나서도, 정작 그이가지시하는대로 하지 안허도 큰일이니, 만일에 그어 딸을맛지 안흐면, 복덕을 엄시에얼허버릴 그뿐이 아니라, 아주여의영 집안은 결단어나고, 몸뚝이는 한평생 다리병신은면하기 어려운 노릇이라……』

그리고 말을 잠깐 끈혓다가 그는 가장 냉담하게,

『밋지 안코, 그런 양화를밧는다 하더라도 그거야 내가 아랑곳이 업지.』

한마디 중얼거린다음, 문득생각난듯이 장씨를 도라보고

『자─, 비가 끄첫소. 인제 그만 나려가 보오.』

파면 어느틈엔가 비는 끄치고, 하날에 구름은 차차 버서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어, 이달 그믐날 새우재로 애아버지를 나가보라고 할까요?』

장씨는 마지막으로 그래한것을 무러보앗스나, 노파는 다시 돌벽을 향하여 몸을 고처 안즈며, 몸 가지 업시 투미러파 갓다.

그, 단정히 안저잇는 노파의 뒷모양을 장씨는 어욱히 바라보다가.

『그저 귀히 보아주십시요. 하라시는대로 모다 하지요.』

나즌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장씨 노파의 등에다 공손히 절을 한번 한다음, 굴에서 나갓다.

『네─』

『마누라는 지금 내말을 머더주지만, 영감은 그냥 고대로 고지식하게 내말을 멧지는안흘게요. 허지만 속는셈치고, 며칠만 기다려 보라구 일르시요. 내말이 정녕이 잇나, 업나.』

『에그. 꼭 밋습지요. 어느어른말슴이라구 꿈엔들 의심을품거나 그러할리 잇나요?』

노파는 다시 장씨의 얼굴을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잇는다.

『영감에게 내말을 낫낫치 이르고 이달 그믐날밤 부디새우재로 가보라고 하시요.』

『그믐날밤, 새우재로요?』

『응, 새우재로─새우재로가잇스면 밤이 이슥해서 웬처녀를보는 젊은사내 하나가 꿈림을꾀여 몰고 올것이니 그저어데까지든지 그사람 뒤만 쪼차가라고 그러케 일르지요.』

『저─못보던 젊은 사내가 꿈련을 몰고 오는걸 쪼처가보라구요?』

『응 그래 그사람을 쪼처가보면 어째 차차로 알걸이 터질게요.』

『네─그사람을 따라가면요?』

장씨는 열조차 떠인 눈으로 노파의 얼굴을 처어다 보다가

『저─ 딸년을 뉘집으로 시집을 보내야 하나요? 송가해 서울로 올려 가라시니 그건 어느때가 조흘지요? 또 살렴이나 되는 사람일까 언제 이루 어떠케 사귀나요?』

新掲載諧謔小説 面白く!!早くも滿天下熱狂!! 嫁取り双六 佐々木邦
藤縣校の七不思議、美人と財寶を繞る奇怪な傳説を繞って續出する珍事件の面白さ素晴しさ！見よ、巨匠會心の大力作!!

大評判事變小說 老從軍記者 諏訪三郎
果然、全國の感涙は老記者志水に注がれた！

▲股旅小說 駒下駄道中…原巖
▲探偵怪奇 双假面…橫溝正史
▲時代小說 魔粧佛身…吉川英治
▲武勇講談 斑鳩平次…神田越山
▲新作落語 洒落無筆…昔々亭桃太郎

戰地でも銃後でも断然
愈ゝ大評判！九月號の素晴らしさ！

現代小說 日本の妻 竹田敏彦
戰慄！奈屋の怪事件から明子と毅一の身に意外の大暴風雨！

時代小說 浮名紅梅 川口松太郎
主家の大事にどうする數五？雪の一夜にあはれ小萬の血の涙！

現代小說 愛憎の書 菊池寛
皮肉な運命は妹扶久子と耐林の上に！雨か嵐か、興味最高潮！

小型折本附錄 實語教・童子教 (加藤咄堂譯)
共に處世修養の名訓として古來有名な珠玉篇！本誌に深切な解說あり

時事問題早わかり…太田正孝
現代名士五分間傳記 ◎政治家風見章氏 ◎實業家村田省藏氏
私の感心してゐる人 各界四名家が感激感動の執筆！
古今人物清談 (全國師範學校理事) 安岡正篤

日本一面白い！為になる！

特別附錄 股旅小說傑作集
▲痛快 一宿一飯 ▲友情 澁柿やくざ ▲義俠 傳法大名
(平山蘆江 穗積驚 久我莊多郎)

卷末附錄 讀切小說傑作選
▲貞烈斷腸 志士の妻 (太田黑克彦)
▲母の勝利 善女 (片岡鐵兵)
▲快聞異 佛心の下駄 (大倉桃郎)
▲探偵 海底の兇賊 (大下宇陀兒)
▲捕物山窩綺談 菜花峠の山女 (三角寛)

人物修養について蘇峰先生と語る 鶴見祐輔
果然大評判！見よ當代の名コンビが古今の偉人を引きさつゝ語る素晴しき感銘篇!!

恐るべき國際スパイ戰 (陸軍憲兵少佐) 諏訪與平
心せよ！戰時下スパイの活躍はいよいよ猛烈、見よ驚くべき彼等の魔手の數々!!

若槻禮次郎氏縱横談 (岩手の片田舎から起つた波瀾萬丈の半生と眞面目躍如)
板垣陸相出世物語 (見よこの活眼、大信念！戰時下國民必讀の時局修養談)
限りなき心の力 (近來の名講話として大評判の修養談)
私の商賣繁昌道 (帝都細胞の永藤パン店主が血の體驗より述べるこの名言)

動物の面白いはなし座談會 五氏出席
理の珍話、インコの殉死、天馬の正體、躾け方仕込み方を始め秘話珍談續々!
◎このほか名記事滿載！到る所大評判！
お求めは大急、即刻書店へ!!

◎六十錢(送料五錢)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振替東京三九〇〇

ORIGINAL PERFUME ORIGINAL PERFUME ORIGINAL PERFUME ORI

더위를잇고 선늘하게하여주는 좋은향기！

꽃동산에 노는듯한 좋은향기로써靑春의꿈을꿈꾸어게하는「오리지나루」香水는 여러분의마음에 꼭맞어 기분도 상쾌하며 言없는매력과 어여쁨을 늘 분돗아줄것입니다

더위를잊어 能率이

따게만들어주는 夏節家庭常備品이오니 늘 서늘한기분에 몸게하여주며피곤함을잊고 能率어나도록하여줍니다 그러므로 出入하실때 남에게대하실때 사무나 공부하실때 더위로 빠짐을 일우지못하실때 좋은향기가오래가는「오리지나루」香水의한방울을 꼭잊으지말어주시거를바람니다

高貴한花精三十八種

을골나서만든 진국으로 歐美各國에 자랑하는좋은향거를가진 香水이오니 반듯이여러분의만족을들일줄밉음니다 姉妹香水로서 高貴한향거를가진「오리지나루리리─」「오리지나루로─즈」「오리지나루바이오레스크」가잇아오니 많은愛用을바람니다

小瓶 中瓶 大瓶

本舗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株式會社 安藤井筒堂

좋은향기가오래가는 原料香水 オリヂナル香水
오 리 지 나 루 향 수

智異山探險記

智異山行第一日……(八) 雲霧中의 鐘石臺 ⑫

李殷相

興時嶺上에서 右便으로 올라가기로 오는길이 老姑壇가는길이오 또오는밥 우리가 여기 잇는 西洋人 避暑村中의山齋에서 머물것이다

그리고 원편으로 오옥 소소亭은 鐘石臺인데 첫날에 지친 一行은 山暮을 남겨에지친一行中에서 情說좌저들기에도 몹시나疲困한모양이다 그러므로 一行中에서 情說한 鐘石臺만 選拔하니 겨우五

大名 액사람만이 외편으로 鐘石臺까지 올랐다 나려오기로 하다

鐘石臺에 이르렀다 [illegible]

鐘石臺는 [illegible] 바위들이 몽키어 제멋대로 高臺를 이루엇는데 고요한밤이면 이바위가소리내어울므로 이름하야 鐘石臺라하엿다는것이다

지금 우리가 올라선 鐘石臺는 나는 雲霧속에 잣혀 尺을 分揀키어렵다 주먹이 쥐어지고 가슴이 떨리도록 端重하고나 그러나 壯絶한 재무여이지 悽愴한생각에 心臟마

血管이 지글것 터질것만같다.

鐘石아 울리무나 소리쳐 울리무나 붉가리 몽치를 처치고 울리무나 山岳이 깨어지도록 우렁차게 울리무나.

너따라 나도울마 목노하 나도울마 平生에 짓하던을 허틀려 나도울마 江河를 꺼처지라고 크게 한번 나도울마.

벌떼고 울자하나 울것이 업섯노라 못울고 울고파도 울사람이 업섯노라 주저코 雲霧中에서

설키어고 가려노라 四十年 자하고자란 [illegible] 어주기를 부탁하고 [illegible] 하야 [illegible] 서섯어어

거기 나려오자마자 天皇노峯 [illegible] 어지러워라 [illegible] 谷이 [illegible] 나타나며 [illegible]

가오 날보는 [illegible] 기리 [illegible] 어디어잇나 [illegible]

이 거기엔 [illegible] 名山 [illegible] 이러라 [illegible]

學藝

作家의 情熱과 文學의 思想性 ⑤

尹圭涉

어제 西歐의 哲學이라든가 科學의 參入에따라 思想의 槪念그것부터 根本的으로 變化한 오늘에잇서 그러한 傳統을 가지지못한 어떠한 文學人이 文學의 思想性을 捕捉한다는 것은 如干 困難한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困難은 반다시 克服되어야할 性質의것인것이다 우分의 價値도업는 藝術性(一그들의말에依하면)의 喪失을 내며 衛의 支柱라고 할수잇는 思想性의 捕捉을 躊躇할것은 업는것이다.

『思想은 그自身으로서는 決코 藝術性을 排除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思想은 徹底하고 그것明瞭하지 안흐면 아니된다 그것이 그의 血이되고 肉이되지 안코 면 아니되며 그것이 그를 藝術的創造의 瞬間에 잇서서 迷惑시키거나 混亂시켜서는 아니된다 眞一 이가를 必須의條件이 缺如되엇다면 그대엔 思想性은 藝術作品가운데 有害하게 反映되는것이다 即 作品가운데 說敎的 要素와 倦怠를 가저오는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잇서서도 그罪는 思想에 잇는것이 아니라 그에 通曉하지 못한 一即 꼿까지 思想的이어야한다 一思想을 作品構成의 內面的 에네르기 一로 轉化하지 못한 一引抄者註) 藝術家의 能力에 잇는것이다. 要컨대 그 罪過는 思想性에 잇는것이 아니라 思想性의 不足에 잇는것이다』 (이상 論)

이 지루한 引抄는 確實히 어떠한 文學人이 가지고잇는 思想性에 對한 偏見을 是正하는 데 잇서 暗示를 가잇는것이라고 生覺한다 아랑도그의 『散文論』가운데에서 『散文의 全組織은 思想에 依하야 保持된다 그리하야 動하야마지안는 모든心像도 하나의中心을가진 周邊에 끌려매이는것이다 여기에잇서 本體가 되고 實質이되는것은 思想이라고 하야도 조흔것이다』 라고하야 藝術의 支柱는 思想이라는것을 말하엿다。

如何間 어떤의 文學에 잇서서 던욱이 最新의 作品에 잇서서

누구나 體驗하고 잇는 奇怪한 感情의 하나는 한作品을 읽고 나서 讀者의 腦裏에 아무런感銘도 업시 그대로 사라지는 點이다 讀者는 무엇을 읽엇는지 아무런 記憶조차 가질수업는것이다.

여기에잇서 讀者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것은 讀者의 感受性이 鈍하다느니보다도 그 作品가운데 아무것도업다는것을 意味하게되는것이다.

이것이 곳 思想性의 缺乏에 由因한것임은 讀者보다도 作者가 먼저 直覺할수잇는것일것이다 思想이 옹을 안지못하고 벌거숭이가되어 作品속에 굴러다니는것도 보기실치만 思想이 稀薄한 作品의 貧困은 한層더 참을수업는것이다.

가든 倫理問題에잇서서도 西歐에잇서서는 오랜적부터 神의問題란든가 自由意志의 問題란든가의 哲學的으로나 科學的으로나 深長한 觀念을 가지고잇는 若干

의 中心問題를 둘러싸고서 作家는 積極的으로나 否定的으로나 거기에 뛰어드러감으로써 自己의 倫理를 키워왓든것이다. 事實 호一머一를 爲始하야 떤테 쉑스피어, 괴一테, 빨자크, 도스토 어에프스키等의 偉大한 作家에 잇서서는 그들의 作品가운데 어떤 哲學者보다도 만흔 思想을 發見할수잇는것이다.

이떠에잇서서도 作家가 上述한 倫理와 倫理의 同一性을 考慮에 넛는다면 作家가 뒤어드러가서 참으로 格鬪하지안흐면 아니될 幾多의 倫理的 問題가 업는바아니다. 오히려 東洋的인 倫理的 問題는 어떠한 作家만이 손대수잇는 가장커다란 問題가 될

마든지 그대로 放置되어잇는것이다.

이떠의 作家들도 이가튼問題와 참으로 格鬪하게될제 거기엔 반드시 作品의 生命力이라고 할수잇는 思想性을 낫코야말것이다.

우리는 먼저 思想性의問題에 對하야 皮相的인 偏見을 버리고서 一切의 問題를 思想의 파스펙 티에던저 思想의 母胎인 生活을 파헤처야할것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明日에의 文學이 기다리고잇는 것이다 르만은 上記의 『對話』 中에서

『藝術家가 自己의 取扱하는 思想을 아무리 强하게 飜譯하야도 지나칠것은업다. 思想은 一目瞭然하게 읽혀저야할것이며 作品全體에 君臨하여야할것이다 思想은 形의 快適線의 整調보다도 한層 美한 實로 眞을 가르친것이며 思想이라한 作品가운데 總括된 『眞』 以外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하엿다

美란 實로 眞을 가르친것이며 思想이라한 以外 眞이란 思想 [illegible] 美를 構成하는것이다

想華 徘徊 (下) 外一篇

徐廷柱

랭보오의 頭蓋骨

랭보오는 꼿으로 문득 생각는다. [illegible] 아니엇다 애미와 누이의 품으로 도라갈일이 아니엇다.

牛脊 부지러진 다리를 끌고 그래도 그대는 그敗殘의 最後를 故鄕에서 마치려고 도라가는가. 弱한 人間. 그가 臨終의 寢床에서 누어

아무리 [illegible] 파 [illegible] 多辛히

꼿을 빼우기도 하리라, 多幸히 도 殘表된 詩篇의 몃줄이 詩人 랭보오를 後世에 傳하리라.

……그러나 랭보오! 나의로 맨티시즘은 오히려 그대를 實하려한다.

一切의 過去를 休紙처럼 불사르고 그대가 그無와가튼 砂漠만을 가슴에 不絶히 分解하며 닷돌때 한개의 制限된 아라비아沙漠은 正히 한개의 肺의 道路의 無限에 彷彿하고 그대의 피로저진 正午의 肉體는 能히 一의 퀘니크에 該當하엿다. 랭보오! 靑年들의 먼一 稱線은 언제나 그대를 노치는일이 업스리라。

하여간 그대는 休息할일이 아니엇다。

地球는 어얼마나 좁은것인가. 極端——그러나, 랭보오의 길은 컴퍼스의 거파가리 圓形이 어여서는 안된다. 永久히 到達할수업는 完成할수업는 直線이 어서 조앗슬것이다.

랭보오는 어 自由아 回歸

어머 [illegible] 하는 [illegible] 세상이 아니엿드냐 [illegible] 랭보오의 名몰 [illegible] 하는 이 일은 [illegible]

……

新刊評 震檀學報評 그第九號刊行을보고

盧聖錫

어번에出刊된 震檀學報에揭載된 論文은 三別抄와 그의亂에就하야 (一) (金庠基) 李朝初期의 建都問題(李丙燾) 朝鮮鄕約의 成立(柳洪烈) 肯後世宗에就하야(金映遂)의四篇으로 그모다 珠玉에견줄力作안임이업고 그論述하는바 또한精論卓見 아님이업다. 이제簡單히 各論文의 梗槪만을따서 紹介하고저한다。

(一) 三別抄와 그의亂에就하야(金庠基)

本論文은 高麗中期에 崔氏의 손에 依하야創設된 特殊兵團인 三別抄의成立過程과 그의職能과 또한 그들이 이르킨叛亂의顚末에關한 論述일것이나 今回에는 다만三別抄의 成立過程과 職能만이 論述되여잇다 그러므로 氏의論文의全貌는 次回를 期待할 지안코는 엿볼수업스나 今回의論述한것만으로본다면 그敍述하는바가 大體로 穩當하나 가는問題를取扱한 池內宏博士의 『高麗の三別抄について、附,三別抄の亂について』 (史學雜誌第三十七編九號所載) 라는論文과 內容的으로 그

리큰差異는 업서보인다. 然이나氏의論文의序言에依하면 三別抄 그自體의究明보담도 그의亂의顚末을 밝히는데 잇는듯하니, 次號의 論述이야말로 크게 期待되여마지안는다。

(二) 李朝初期의建都問題 (李丙燾)

李朝初期에 잇서서 建都問題를 中心으로 여러가지複雜多端한問題가 疊出한것은 어떠 周知의事實이니 本論文은 李丙燾氏가 일직이 이問題에關하야朝鮮學報(史苑)第一、二號에 連載하다가 同學報의 廢刊으로 말미아마 不得已 中斷한것을 다시修正하야 發表한것으로 李朝初期의 建都問題의 顚末을밝혀 낫는이엇다. 即 李丙燾氏는 이를論述함에잇서 太祖朝의建都問題와定宗及太宗朝의 還都問題의 두部分으로 나누고 이를또한 여러갈래로 조개서敍述하엿스니 即太祖朝의 建都問題의 章에 잇서서는 太祖初의 移都計劃으로부터 鷄龍山新都問題와 毋岳遷都說을 거처 漢陽奠都에 이르기까지의 經緯를論하고 定宗及太宗朝의 還都問題의 章에 엇서서는 定宗朝 의開京移都로부터 太宗朝에 다시 漢陽에 定都하기까지의 顚末을 샅샅치캐여 敍述하엿다。氏의 筆에 이끌리어 가다가 鄭道傳의 『風水地理의 秀麗』 진실로 종수있 는 風水地理의 好論文임을 疑心치 안는다

(三) 朝鮮鄕約의成立(柳洪烈)

鄕約이 朝鮮의 社會에가진 바 地位에 對하야는 讀者의 贅論할 說明을 要치 아니 하리라도 어미 知의事實이거니와 이번에 柳洪烈氏의손에 發表된 本論文은 實로 藥五六十頁에 가까운 尨大한力作으로 實로 本論文의 中 問題의 內容을 보담도 三國史記의 本文所載論文中에 가장 注目할만한것이라고 생각한다 氏는 朝鮮鄕約(麗末 鄭夢周의 손에 [illegible]) 에 비해서 나온 朝鮮民俗에 맞는鄕約의 [illegible]

通風조흔大廳에서 午睡나하겟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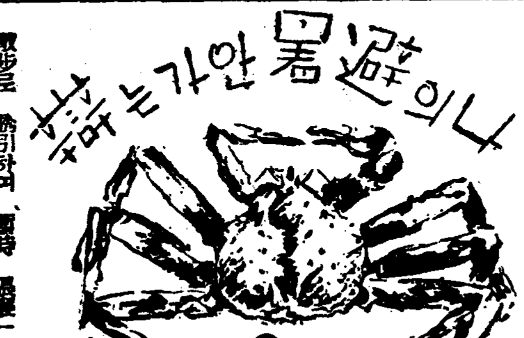
朴泰遠

사람들은 어찌하여 여름만되면 山으로 바다로 避暑를가느니 어쩌니 하고 그 몸과 마음을 함께 수고로히 하는것일까? 이것은 내가 이미 오래 前부터 생각하여 보앗서도 到底히 그까닭을 알어내는수가 업섯든 問題다

어것은 京鄕을勿論하고서 지나 위낙이 客主집飮食이란 粗惡하기 짝이 업는것이요 居處란 또한 至極히 不便한것이 一般의 常識이다 더 구나 避暑地에 잇서서의 旅

館業이란 여름철을 두어달을 벌어서 一年間의 糊口를 하여야하는것이라 어떤 가지로 大繁昌을하자어 잇는것이다 至極히 不潔하고 狹窄한 房속에 뭉어 어데에서 간밤에는 三號室소반이 노처로 고비 나질인데 四號室이 五號室밥상을 치레하엿던 장조림으로 점심에는 七號室손님이 청을 무처 노치듯 장아찌로 『아 이곳에 오뭐로 갑자기 밥맛이 부러서…』 하고 旅館 主人에게 그러한 이들러면 아천조차 하여 가며 남은 自鍋 수까리으로 사발사철에부른 밥통을 긁고 잇는 꿈이란 眞正 가엽은다 고 할수밧게업는것이니 그래 도 그들은 金錢 그러한것을 계닷지 못하는듯시패 敢 하

나의避暑안가는記



로 늣게 配達되는 新聞을사 어에 노코 政治談도 試驗하며 或 買物이 不實하여 妻子를 남겨두고 다라온 몸으로서 구석房에 神經衰弱症을 呼訴하는 남의 小室을 저녁 散步로 誘引하여 一時 寂寞한 感想을 징기는等……그리고 스스로 滿足하여 하는데 는 오직 自然하여 마지 안케 牛歲의일이다。

어찌하여서 그들 決코 넉넉하여 보이지 안는 그들이 그들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먹지春春으로 計劃을 세우고 그래 구래여 바다에서 山에서 가진 不便과 不快를 무릅쓰고 지내려하는것일까 ?一 처음에도 말하엿거니와 나는이미 오래전부터 疑問을마지안헛던것 이나 이제 이를 革하 거예 미처 나는 마치내 그까닭을 알어내고야 말엇다 그것은 그들의 몸과 마음이 항케 가난하 기 때문이다。

爲先 그들은 美食家인 나로서는 想像하기 조차 어려웁게 粗惡한 料理를 平素에 甘食하여온 사람들 어다。避暑地等處의 一食 五十錢程度의 飮食이 도리혀 그들의 입맛을 돕는다드라도 그것은 決코 怪異한 일이 아니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自身이 所有하고 잇는 住宅의 周圍는 그러한 客主집의 狹窄하여 오히려더

狹窄하고 또不潔하다 그속에 서 그들이 辨識스리 飼育하여 온 빈대며 蚤等의 狹小한家畜과 더부러 더위와 자운다는 것은 참말처디기어려운 노릇 일것이다

그래 그들은 그 괴로운 몸을 빼치려 피하는것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別莊을 갓지 안코 그리커 얼마간의 돈을 들여가며 어데 外方으로 돈들러 간다는것이 그들의 가난한 마음에그지 업는 기쁨 을가저오는 娛樂이다 그들은 떠나기前에 무릇 알만한 사람에게 向하여서의갓 機會를 利用하여 某處로 自己는 或 은 自己 家族은 한여름동안 더위를 피하고 오겟노라 宣傳하고 집에 도라와서는 부지 런히 다리쭉에 製하였던 남은 고리짝을 끄내여 먼지를 떤것이나 그리커하여 일컷

케 더우것에는 스스로 意外인 느낌이 업지 안허 (이건 藥然스러 재도란 쓰러나 오지안허나?이렇을 앓어어면 그가업스나이 七年을두고 貪내오던 洋服贓이나 하나 싸 주는걸 그랫지。)

하고 마음에 뉘우칠는지도 모르겟다 이제 이를어서는 또한 어찌할수업는 일이요 뉘우치면 뉘우칠수록에 消費되는돈 만 아까워지는것이 마음에에 닮혀, 그래 漸漸 얼굴에 목 덜미에 흘러나리는 땀을씨스 며, 엽房대머리진손님파다부러 『참, 무던히 더움데요 허지 만, 여기가 어쩌면 더울다는 서울은 어떨까요?죽겟드고요 야단이겟지요。』

그러한 歎話로 스스로 慰勞 하려애쓰다.

그러나, 仇甫는 別로 더위로 하여 속을 태우는 어시, 이제이 글도 다 썻스니, 기름진 안 주에, 香氣노픈 술이나 한잔 먹고, 바람 잘 들어오는 大 廳우에서 暫時동안 午睡를 집길 方針이다。(續頁은 筆者)

文藝短篇 閑夜月 (三)

張德祚作 崔根培畵

처소가 이효녀전에서 수년전 (翡翠閣)落으로 박귀고 『곤전마 마』 든것이 『대비마마』로 불리 어 노하다.

머리마를 화출아서 젊은궁녀 이 수락상을 맛들어다 곤전마 마 는등 되물린 곤전은 밤이 아

허위의 올라리속에서 틸 충을 추기야 마치가지가 아니 나

그가 바라고잇는것은 결코 그 가 즘 생활이 아니엇다

몽단도 아니오 작난도 아니오 더군다나 거짓이란 혓짓만큼도 업는 진정한 삶에 대한 희구 이엇든것이다

『내마음은 어무도 모를다。살 아갈수록 살아갈수록 시셈이더 해가는 이마음을 누가 알까부 냐』

그 아무도 몰으는 마음속국

날이 수태서지는 날 [illegible] 밤에는 [illegible] 하나 [illegible]

꽃의 풍경이 우낙히 빵그러게 피어나는 바람에 [illegible]

왕비는 [illegible] 하엿다。 가슴속이 훵한게 감작이 얼굴 운 공허가 전신을 엄습하며 눈 물이 주르루 흘러나린다。

그러나 그것은 나제 생각하 든 외로움과는 어데지 설질이 다른 외로움이엇다。 나의외로 움이 짓찌라서 몸둘것업시 압파

까온 외로움이라면 지금의 그것은 깊고기픈 호수속으로 자분히가 라안저버릴것가튼 외로움이엇다

책을 드리라고해서 누구를식 혀 읽혀볼까하는 생각도 나긴 낫스나 그만한 의사조차 엄우 어볼 기력이업는 설로 낙처할 만큼 따분한 외로움이엇다。 곤 전은 벼개위에서 두어번 고개 를여프로흔들어 홀러나린눈물을 떨어트린다 누가 자기를 추종 하여 놀라운 악행을 저질르게 할사람은 업는가。 부왕(夫王)연 산을 홀러다가 그 넓은가슴에 으스러지도록 안기게해줄사람은 업는가。

왕비는 아까자기의 짜증을못고 기괴감격하여 물러난 양녀인이 원망스러웟다。 저엽전실에서 흘거리고 자는곤전처소의 내인 들도모다 원망스러웟다。 딸의따 울도 모르고 현숙한왕비의 아 버지로 자처하며 어제 령의정 까지 벼슬이 올라잇는국고 (國 舅)의일도 원망스러웟다。

모다를 당신을 인간으로 취 급하지안코 한개의 꼴두저처럼 허위의 련대(蓮臺)우에 모서노 처 안느냐

혹 당신이 자유로운 의사를 회복하여 그 련대에서 잠간이 라도 나려올것을 보인다 해도 다른사람들의 차미와 배호의탈 을이 다시 그를 련대위로 몰 아올린 아니라 일종 단단하빗 그리 메여노는것이다。

『리일이 구렁이라니 어지야가 을도 어러케 홀연히 더치송이 운』

사 봄는정열을 태우다가 아무도몰래 지처버리 는 저 백일홍만이 알고잇는것 갓다。

얼마나 그대로 안저잇섯는지 『수라를 드리오나이다』 하는 장지바 목소리에 왕비 는 겨우 몸을바로 견우엇다。 아족 전촛을 드리지안흔 방안 은 벌서 어둑한 그늘이 숨여 드는데 늙은양씨가 꼬박꼬박졸 고잇다가 기겁을하여 업드린다

『고단한가보이 물러가게』 늙은이의 모양을 어욱히 바라 보시든 왕비의 목소리는 거칠 엇다。

자기마음에 구비치는 설움도 모르고 조으는 로궁녀의 둔감 한신경이 가장 밋고의지하든사 람이엇든만큼 원망스러웟든것이 다。

『옹 어서 물러가게 그리고남 들이 빠른히 남기고 [illegible] 우나 저에 [illegible] 들고 으로 우라지도 모를가며 [illegible] 곤전(古典)에도 삼비구빈 (三妃九 嬪)이라니 내아무려 홍하대서 랍이지만 그래 대전마마께서어 러허 천분하실라고 애를 태며 짤며 하겟나 옵에엇시 놉은이 가 나를시기하는 계집으로지목 을해주니 이런기막히는데가 업네 그려』

그러고는 한쎄러 헌잇게 『다만 대전마마 어쩌가 강강 하시못하시니 그것이 념녀이지 내마음에는 털끗만한원한도 업 네』

『황공하오이다』 일종 거짐 보복한 영내인의

女性

九月號　定價二十錢(送料二錢)

京城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5878

朝鮮家族生活制度의檢討

咸尙勳

原稿바르게쓰는법

★코스머스一(表紙)

★黃昏江頭一(新詩)

★새떼一(新詩)

★川邊小曲一(新詩)

★淸流一(新詩)

★언덕위一(新詩)

★萬里鏡一(新詩)

編輯室

★女性界消息　★母性手帖

★主婦手帖　★編輯後記

(讀者作品募集規定)

달밤에울고간女子 金永壽

漫文 鍾路夜話 趙豊衍

映畵 第九交響樂 朱世坤

내동무公開狀

○敬愛하는金元福……鄭勳譿

○幸運兒鄭勳譿……金元福

○淸風가튼李善熙……張德祚

○엄마文士張德祚……李善熙

시방생각해도부끄런이야기

○이럴데가또잇습니까……白信愛

○다시보니아주딴사람……孫貞順

○업혀가는二十處女……朱壽元

○꿋안나는조상치르고……張文卿

○생전처음한나의獨唱……金壽任

○校長아페쓰러지고서……宋今璇

崔奎南氏家庭風景一探訪記

女性과母性愛 許永淳

詩와隨筆

○가무래기……白石

○비……白菊喜

○愛戀頌……李燦

○萬頃平野……蔡萬植

○가츠리島……李石薰

○芍藥花……洪性翰

女性書簡集(書簡)……英雲紫

깨끗지고저리고 (裁縫)……裴祥明

九月의食卓 (料理)……趙慈鎬

젊은어머니讀本 (育兒)……李達男

非常時局과代用品 安東赫

詩와鑑賞 鄭芝溶

一스승에게바든말씀一

□하늘가리노프라……李熙昇

□우룡을버엿고나……鄭芝溶

□새가지말씀……李甲洙

□獨自一한마디……金文輯

□마저막말씀에……李源朝

□채전과스승……宋錫夏

野談 손톱엽는玉手 申鼎言

小說 강아지 韓雪野

小說 惡魔 張德祚

連載小說 世紀의花紋 金南天

結婚의危機 李相昊

産業

明年부터實施될 農業保險의 對象
桑園의 凍災와 이에 對한 豫防策

今期議會를 通過한 農業保險法에 依하야 每年 數百萬圓의 被害를 逢하는 桑樹의 凍害는 昭和十四年四月부터 實施되는 該法의 對象으로되게되엿는데 이凍害는 晩霜時에 發生함으로 이를 凍害라고도한다 凍害의 原因에 對하야 現國立農事試驗場長安藤廣太郞博士가 發表한 硏究에 依하면 桑葉의 汁液은 零下〇·七乃至 一度로부터 凍結하기 始作하야 零下二—四度로 完全히 凍結하나 一般的으로는 零下二—六度로 氷結한다고하며 또 東京農試에서는 桑葉은 零下二度半以下의 溫度에 二時間以上接觸할境遇及 零下三度以下溫度에 三十分以上接觸하면 凍害를 입게된다고한다 또 群馬縣의 調査로는 氣溫零下一—二度半사이에 三四時間接觸하면 八—九割의 被害를박고 零下一度內外의 空氣에 一時間쯤 接觸되면 約五割、零下〇、五度에 二時間쯤 쪼이게되면 輕微한 被害를 본다고한다 何如튼 氣溫이 갑작이 寒冷하야 桑葉의 汁液이 凍結하기때문에 組織이 破壞되여 被害를 입으면 明白하다 그런데

【凍害】의 一般的豫防法으로서는 凍害의 念慮가 잇는 桑園은 中지 又는 高지 方法을 取하야 適度하게 擴葉(잎을따다)을 하지안흘것 凍害가 激甚한地方의 桑葉은 될수잇는대로 夏秋蠶專用桑園으로할것 防霜遮斷林을 設置할것 又는 臨時的凍害豫防으로서 燻煙法、覆蓋法、灌水法等이 잇는데 燻煙方法으로는 鋸屑 或은 藁、木葉(落葉、松葉、杉葉)及 石油를 使用하야 每畦 又는 隔畦에 對하야 一間半 又는 二間의 間隔을두고 기괴 六七寸의 溝條를 파고 그미테 落葉을파뭇고 그우에 靑松葉을 덥거나 布片에 石油를 당궈가지고 鋸屑(톱밥)等으로 덥는다 點火는 대(竹)끄테에끼어가지고 行한다 이燻煙效果는 放熱한 桑園의 氣溫과 十度以上의 差가 잇는點으로보아 그效果가 相當히잇서 段當 一回三圓內外의 經費를 要한다

覆蓋法은 桑園을 油紙로 덥퍼 保溫하는것으로 바로툴低도조타 여기다가 點火의 方法을 쓰면 外溫보다 四十五度에까지도 노핌수잇다한다

또埼玉縣蠶業試驗場에서 行한 覆蓋法에 依한 凍害豫防經費는 段當約四十四圓을 要하엿는데 이에는 기리(長)五尺 넓이(幅)四尺만콤 支柱를세우고 八番線或

以上 直接臨時的豫防法은 凍害豫防法을 바덧슬때 隣接共同桑園等에 共同的으로 實施할것으로 個人的으로 實施함은 經濟的으로 不可能하다고 봄이조타 그러면 桑樹가 凍害를어덧슬境遇 如何히 그善後

【處置】를할것이나 먼저 春秋兼用桑園에 對하야는 被害桑園中 適宜한가지를伐採剝皮하야 新梢의基部 休眠芽 副芽等을 檢査하야 各芽의 附着點及 附着點下자 黑褐色으로 變한것은 春蠶期에 充實치못하므로 오히려 樹液이 流動함을 기다리여 各枝條를 대미뚱으로부터 伐採하야 夏秋蠶專用桑園으로 臨時變更할것、다음 前記方法으로 桑樹의 枝條를 檢査하야 休眠芽及 副芽가 生存한것에 限하야는 그대로 存置하야 再發芽를 促할것 一條中 生存한 休眠芽 副芽가約半數나 存置할 境遇에는 各條의 尖端三分之一을 伐採할것 但春蠶末期의 收穫時 每株新梢의 一枝條一枝式 남겨두고 伐採施肥하야 夏秋蠶期의 桑葉硬化를防止하야 伐採收葉할것等이다

또夏秋蠶專用桑園에 對하야는 새로나온것(新梢)이 凍死하고舊枝까지 傷害를바든 古梢는剪除하고 株의대미뚱의 芽를 파서 休眠芽의 促進할것 新梢가全部 損傷한것은 損傷部를 剪除하야 新梢의 尖端을 損傷한者는 그 程度에 依하면 損傷의 下部五分乃至 一寸을 剪除할것、發芽를 促進케 爲하야 被害後 卽時 速効性窒素肥料를 使用할것은 勿論이고 蠶種에 對하야는 催靑手後(反轉期以後)는 卽時 攝氏 四十度의 溫湯에 浸漬하야 一時催靑을 延期하야 桑芽發育을 기다릴것 (但이期間은 十日前後로함)催靑期以後(反轉以後의것)은 그대로催靑을 繼續하야 發生前日에至하야 溫度攝氏 四十度의 溫所에 貯藏하야 掃立을 遲延할것(但그期間은 一週間以內)라고한다

[illegible] 冷藏[illegible]에는 攝氏五十度前後로 三日間 大十度로 二日間의 貯藏을 [illegible] [illegible]中의 [illegible]에 [illegible]서는 조금低溫으로 [illegible]하야 桑葉의 [illegible]과 【均衡】을 保持시킬것、[illegible] 또 [illegible]이 [illegible]期에 걸리기쉽고 不良의 次葉을 招來하기쉬움으로 注意함이 조타

또 夏秋蠶으로 變更한 桑園은 腐枯病이 發生하는일이잇스므로 六月中旬에 石灰硫黃合劑로 消毒하야 漸次株미슬아리에 葉을 모어놋것 또 被害桑園은 虫害를 밧기쉬우므로 어느때에特히 注意하여야할것이다

完州苧麻田管理 徹底히 指導

【全北支社發】完州郡農會에서는 苧麻增産을目標로 그동안 苧麻田에 配肥管理를 特別指導하도록 各面에 通牒을 發한바잇섯스나 指導가 徹底히 못된感이잇다하야 요지음 各面振興會를 通하야 嚴重히 督勵하리라고한다

工業質疑

카라멜製法

【問】카라멜製造의 要領을 가르쳐 하는데 어데서 購買하는것이 조켓습니까 또大體의製造工程도下敎하여주십시요

【答】製造原料

밀크카라멜及초코레ー트캔디ー의原料及配合量을示하면如左합니다

	밀크카라멜		초코레ー트캔디ー
砂糖	一〇〇	一〇〇	一〇〇
飴	一三〇	九五	一〇〇
小麥粉	一五	一五	一〇
煉乳	五〇	—	—
牛酪	五	五	七
牛乳	一五	六〇	三〇
바타ー 초코레ー트	—	—	一〇

製造工程

以上의原料를 攪拌機付의蒸氣釜로 攝氏一一八度—一二一度까지 끄립니다(牛酪 香料는後에 加합니다) 끄린것을 물로冷却케한 冷却盤에흘려서 (六十度가되기까지는 冷却할必要가잇습니다) 冷却하고 五十度—六十度에 適當한두러이로 로ー루에걸고 느루어가지고 다시식혀서 四角으로 잘릅니다 끄리는것은經驗과熟練을要하므로 여기에서말할수는업스나 겨울은比較的 軟하게하고 여름은 잘끄려서 適當한硬度를 保持하도록합니다 品位는原料의 砂糖 물엿의良否에依하는것은勿論인데 牛乳牛酪이만흘사록 良質의것이됩니다 砂糖이만흐면 糖化하기쉽고엿이만흐면 吸濕하야 물러지고또 小麥粉이 만흔것은맛이적이脂肪이만흐면 녹아내리는 缺點이잇습니다 小麥粉은 充分히끄린後에加할것이데 덩울이생기지안토록 注意하지안흐면아니된다 詳細한것은 左記에揭載되여잇스므로 參考하십시요 『製菓』定價九十錢 (實用製菓化學講座第一卷)

登錄商標 分析手數料

【問】一、登錄商標에對한 參考書、그書名과發行所
二、辨理士에 付託하는때의 一件에對한 費用、朝鮮內에잇는 辨理士의 住所
三、京城中央試驗所에 分析을 依托하는境遇에 一件의手數料

【答】六法全書內의 商標法과 現代法學全集第三十六卷內에 잇는 商標法을 參考하십시요 (發行所東京市丸の內 昭和ビル 日本評論社)

二、辨理士에게 付託하는 境遇에는 [illegible]七圓 [illegible]十圓 合하야 十七圓이됩니다 잇는 辨理士로는 京城府 [illegible]町 [illegible] 等이 잇습니다

三、京城中央試驗所에 分析을 請求하는때는 一物質一成分에 [illegible]하야 一圓이며 그外에一成分에 [illegible]加할때마다 一圓式增加합니다

忠北道産米改良의 農事技術員會議

【淸州】忠北道에서는 米穀生産改良과 販賣改善의 强化徹底를 圖키爲하야 來十六、七兩日間道會議室에서 普通農事技術員會議를 開催하거로 되엿는데 日程第一日午前은 知事訓示、指示注意 聽取、同午後는 協議第二日 午前은議題協議 同午後는午前에 繼續하야 協議로써 終了할豫定이다 그런데 出席者는 各郡普通農事關係技術員 穀檢出張所長 農會職員水利組合職員等 四十八名의 多數에達하는데 同會議中의 聽取、協議事項은如左하다

▲聽取事項
一、米穀生產改良의强化徹底에 關하야 가장 效果엇다고認定하는 施設事項及其具體的實施方法

▲協議事項
一、米穀生產改善의强化徹底에關한件
二、自給肥料改善增殖에關한件
三、麥增產獎勵에關한件

▲答申事項
一、水稻耕種標準에 關한件
二、施肥標準調査試驗의活用에關한件

寧邊四個所에開催 製絲傳習會

【寧邊】寧邊蠶業組合에서는 一般農村婦女子에게 製絲에對한實地體驗을 獲得시키기爲하야 當該面으로協力하야금 製絲傳習會를開催케하엿다는데 仔細한것은 下記와갓다

開催場所	期間
百嶺面上[illegible]	自八月二十日 至九月十九日
龍山面[illegible]	自八月一日 至八月末日
古城面上草洞	右同
寧邊面龍浦洞	右同

그리고 傳習希望者은 各地共히 殺到하나 場所關係로 一個所에 二十名式 傳習케되엿다한다

無砂米運動과 混砂精米의意義 (下)

元來無砂米機나 胚芽米機나從來의 混砂式精米機에比하야 同一時間과 經濟로서는 七分程度의 能率로 이兩者間에는 意外로 硝粉排斥의 聲이잇서 無砂精米機의 缺點을 糊塗키爲하야 白米廢止의 運動이 이러난것이라한다

七分搗胚芽米運動

最近白米廢止七分搗胚芽米宣傳運動이 流行하기때문에 朝鮮에서는 炭酸石灰搗粉으로搗米한 흔흔한 胚芽米를 昨秋名古屋方面에 搬出하야 無砂搗精의 色이不良하고 맛이조치안흔 胚芽의 殘存量이 적지안흔內地의 胚芽米에對한 一大脅威가되엿섯는데 三月早頃는 東京大阪方面에도 漸次搬出하려하야 其進展은 자못 注目되여잇다

그뿐아니라 無砂米運動者는 胚芽米가 榮養米라고 宣傳하기때문에 妙한現象이 發生하야 無砂米運動者는 勿論 一般國民도 硏究치안흐면 아니될事實에 直面하야잇다 그것은 無砂米運動者가 白米는 有害한砂土가 附着되여잇스므로 色이나쁜 胚芽米를 먹으라고 宣傳하기때문에 精米業者는 적지色을 나쁘게하고 또一面에잇서서는 搗精能率을 向上시키기爲하야 [illegible]精에 珪酸의 山砂를使用하야 無砂搗米로서 賣出하고엇다 混砂有害라고 山砂를使用하야 精米하는것을禁止하라고主張하는所謂無砂米運動에 胚芽米運動에서 未精白米와無砂 [illegible] 運動을하는結果 그有害라고하는山砂의使用을 도리어奬勵하는結果가되여 衛生上無害하고 保健上有効한 炭酸石灰搗粉을有害物로取扱하게되엿다

榮養學說과 精米機界의 內紛

故島薗博士一派의 胚芽米說과 榮養研究所佐伯所長派의 七分搗米說과는 事件마다 激烈한 論爭을繼續하엿는데 事實은紙一重의 差밖게업는 七分搗와胚芽米는모도 未精白米의 點에잇서서 國民保健의 大局에미치는 影響은거의 업서어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一方에 無砂米機와 胚芽米機와의 兩者間에 販賣上 抗爭이 繼續하고잇다 無砂米機나 胚芽米機나 能率에잇서서 從來의 搗粉使用搗精의 七分程度를 風味와 貯藏에 걸칠수잇는點 或은 胚芽의 殘存量에잇서서거어 差가업고 胚芽米와七分搗米(無砂搗米)를 認識시코 業界에서 精米業界에서 甲論乙駁하는것은 何故인가 米의 學說에依하야 左右되든가 精米에依하야 支配되든가 다시七分搗米와 胚芽米를 續抵하는 無砂米運動의論據가 恒常佐伯博士의 白米에對한 有害實驗에엿는것은 搗精事情에認識이不足한 一般國民에對하야 一種의 수수꺽기고 아니할수업다

軍部의 見解

最近六大都市를中心으로 行하고엇는 胚芽米運動은 軍部의主唱하는 所謂胚芽米로서 國民의嗜好와 消化量考慮하야 精白度를 可及的向上하야 胚芽의殘存量을 만케하는 精米를意味하는것인데 當局者中에는 完全한胚芽米의搗精困難을理由로 七分搗米와混同하고엇는것은 胚芽米의 趣旨를 沒却하는것으로 佐伯一派와 島薗一派의論爭도 여긔서는無意味하다고아니할수엄다 軍部는胚芽米의搗精에는 混砂를配合하고 無砂를禁止하지 主張하고잇는데 混砂精米를 하는것은 [illegible]

米에使用되여엇는 硅酸質의磨砂를써서 搗精하는것이 有害라고해서 炭酸石灰로 炭酸石灰가라든지 硬化石灰이라든가 「니보톰」이라든가하는搗粉은 極히最近의것이라고 稱할수잇다 事物은 極端으로부터 極端에로오는다가 바로조 中庸으로도라오는것이나 無砂搗라고하는것이나 經濟上其他여러가지·關係로絕體的인것이아니以上 現在混砂有害라고하므로 無砂搗로흐르는結果 炭酸石灰이든가 나토롬이든가하는 近代的搗精劑가 硏究되고잇스므로 炭酸石灰은 過去의것이아니고 將來에對하야 生命을果하는것이라는 意見으로最近混砂精米廢止運動의 第一線에서잇는 軍部의意見은 예로부터使用되여잇는 硅酸質磨砂를 有害의對照로하는것으로 炭酸石灰搗粉에 有害하지 無害하지는조금 硏究를기다리는 問題라고아니할수업다

商品市勢 (十三日)

▲果實類

品名	産地·單位	價格
苹果(旭)	慶北 三貫	[illegible]
〃(祝)	〃 〃	[illegible]
〃(旭)	〃 〃	[illegible]
〃(〃)	黃州	—
〃(倭錦)	〃	—
〃(國光)	鎭南浦 四貫	—
바나나	臺灣 十貫色付	—
桃(白桃)	尙州 三貫	[illegible]
〃(小林)	素砂	—
〃(土用)	〃 〃	[illegible]
〃(菊水)	〃 〃	—
葡萄(간)	水原 一貫	[illegible]
〃(마스캇)	〃	[illegible]
夏蜜柑	紀伊 十貫	—
梨(바ー트렛트)	三貫	—
〃(洋)	慶北	[illegible]
〃(市原)	〃 〃	[illegible]
〃(長十郎)	〃 〃	[illegible]

▲農產加工品

品名	産地·單位	價格
麥稈眞田	單眞 朝鮮產 一反	[illegible]
經木眞田	內地產 〃	[illegible]
杞柳	朝鮮產 一貫	[illegible]
藺草	〃 〃	[illegible]
漆	朝鮮產 〃	[illegible]
椎茸	內地 〃	[illegible]
〃	朝鮮產 〃	[illegible]
楮(黑皮)	〃 一斤	[illegible]
楮(白皮)	〃 〃	[illegible]
乾栗	內地 十貫	[illegible]
乾蕨	朝鮮產 百斤	[illegible]
荏子油	〃 一罐	[illegible]
胡麻油	〃 〃	[illegible]
蓖麻子油	內地 〃	[illegible]
棉實油	木浦 〃	[illegible]
絞油	內地 〃	[illegible]
乾蓮根	〃 一斗	[illegible]
고사리	朝鮮產 百斤	[illegible]
干柿	〃 一貫	[illegible]
干瓢	栃木 〃	[illegible]
蕃椒	朝鮮產 百斤	[illegible]
〃 刻	各地 〃	[illegible]
同 粉	〃 〃	[illegible]
麥粉二等	京城三菱	[illegible]
〃 三等	〃 〃	[illegible]
日の出印	〃 〃	[illegible]
馬鈴薯澱粉	北海道 三貫	[illegible]
澤庵漬	內地 一樽	[illegible]
柿 澁	慶南	[illegible]
木 茸	百匁	[illegible]
蕃草	一枚	[illegible]
生松脂	百斤	[illegible]
栗虫果		[illegible]

▲穀用叺及繩

品名	單位	價格
指定價 京畿	一枚 天地	[illegible]
群山	〃	[illegible]
忠南	〃	[illegible]
慶南	〃	[illegible]
慶北	〃	[illegible]
榮山浦	〃	[illegible]
實價 全南	〃	[illegible]
京畿	〃	[illegible]
繩(擬繩白 十五尋玄)	米自一三分八厘 至一四分	[illegible]
穀用繩(玄)	米自二四分二厘 至二四分五厘	[illegible]
荒繩		[illegible]

▲穀物

品名	單位	價格
玄米三等呼値	石	[illegible]
白米 一等	百瓩로	[illegible]
大麥(上物)	〃	[illegible]
小麥(上物)	〃	[illegible]
大豆(新龍山)	〃	[illegible]
小豆(龍田)	〃	[illegible]
粟(滿洲)	〃	[illegible]
胡麻(滿洲)	百斤	[illegible]

▲肥料

品名	單位	價格
石灰窒素(八月各港渡)		[illegible]
硫安(八·九月同)		[illegible]
過石(一五%)	〃	[illegible]
燐酸加里(各驛渡)	〃	[illegible]
硫安	〃	[illegible]
安東豆粕	一枚	[illegible]
豊年大豆粕	八月限	[illegible]
胡麻油粕	百匁	[illegible]
硫化燐安	〃	[illegible]
加燐安	〃	[illegible]
過燐酸(沖渡)	〃	[illegible]

▲農藝藥品

品名	單位	價格
砒酸鉛	一封度	[illegible]
改良가제인	〃	[illegible]
대리스石鹼	五百瓦	[illegible]
마르알드보도ー	二封度	[illegible]
除虫菊	一封度	[illegible]
硫酸銅	一〇〇斤	[illegible]
結晶硫酸	一罐	[illegible]
粉末		[illegible]
生石灰	四貫	[illegible]
풀드라ー	二封度	[illegible]
殺虫用煙草粉		[illegible]
쿠레오소ー트	一罐	[illegibl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鷄卵	一貫	[illegible]
生鷄	〃	[illegible]
生豚	〃	[illegible]
生兎	百匁	[illegible]
鷄	百個	[illegible]
鷄	十羽	[illegible]
鴨	一罐	[illegible]
四季鳥卵	百個	[illegible]
豚毛(原毛)	十斤	[illegible]
〃(撰毛)	一斤	[illegible]
雞羽	一羽	[illegible]
羽毛	一貫	[illegible]
荏子實(高粱)	〃石	[illegible]
黍		[illegible]

▲家畜飼料

品名	單位	價格
粉末配合 產卵鷄用	(一二五斤) 一號品 二號品	[illegible]
〃 雛用	〃	[illegible]
〃 中雛用	〃	[illegible]
三種配分粉餌	〃	[illegible]
成鷄用四種配合粒餌	上特上	[illegible]
〃 三	〃	[illegible]
雛用二種配合粒餌	〃	[illegible]
玉蜀黍(丸)	一〇〇斤	[illegible]
〃(中割)	〃	[illegible]
〃(粉末)	〃	[illegible]
高粱(丸)	〃	[illegible]
〃(粉末)	〃	[illegible]
玄米	五斗	[illegible]
精麥	〃	[illegible]
大麥	〃	[illegible]
無砂糖	七五斤	[illegible]
骨粉		[illegible]
魚粉		[illegible]
干鰯		[illegible]
成鷄用		[illegible]
中雛用日配		[illegible]

綿絲配給不圓滑로 慶北業者도 悲鳴

八月分配給量不過一八五俵

代表、要路에 緩和陳情

【慶北支社發】 면사배급통제(綿絲配給統制)로 말미아마 업자의 비통한원성의 소리는 귀아프도록 들어왓스나 경북도내의 배급은 타도에비하야 넘우나감소되엇다는 이유로 경북메리야쓰업조합에서는 이상렬(李相烈)조합장이하 팔명이 지난십일일 총독부에 진정차로 올러가게되엇다 그실정을 들어보면 경북도내에서는 대구부를 중심으로하야 양말제직기、군수기통 오백십여대를가지고 오십여업자가오백여명의 직공을사역해오는터로 일년간 면사원료소비고가 삼천사백여표이엿스나 통제이후 오월에 삼백일표、칠월에 이백십오표의배급을받아 소비고의절반에도 차지아니하엿던바 금번팔월에는 다시일백팔십오표밧게 배급이되지안흠으로 업자일동은 참다못하야 전기한바와가티 총독부와군부에 각각진정을하기로 올러간것이라는바 만약 진정의효과가 업슬때에는 대량의 실직자를 낼것으로 관계당국에서도 그추이를 주목중이라고한다

家貰引上에伴해 家主에게警告

【平南支社發】 전국민이 협력하여 대하여야할 이시국을도리여 악용하여 주택난이 심각한것을 호기로 폭리를 꾀하야파남한집세(家貰)를 요구하야 그러치안허도 비상시적생활에 허덕이는 대중에게 괴롭힘을 주려는악덕가주(家主)들의 기운이 농후한점에서 감하여 평양서에서는 일즉부터 「폭리취체령」의 정신하에 그것(집세)을 통제하고저 그간 차가의상황을조사중이엿는데 현재의집세는 내지인측은 평균일조(疊)당 일원오십전으로 일년전보다 이십오전 즉이할가량의 등귀인데 이것을 다시인상하려는경향이 보이므로 평양서에서는 그간조사한 결과 전시내의가주(家主)전부를 일간동서에모아노코 집세에관하여 간담과아울러경고를주기로되엿다

時局下電報通信數 一日二萬通突破

元山郵便局開局以來新記錄

係員徹夜로 眼鼻莫開

【元山】 긴박한 시국의 영향과 원산자체의 발전상의 반영으로서 원산우편국의 전보취급수는 최근 갑작이 증가해가는중이던데 더욱 지난십팔일에는 평소의칠천통내외되든것이 그삼배인 이만통을 돌파하는 개국이래의최고기록을 지엇다고한다 그전보내용은 축전도잇고 연고자 지기친우사이에 왕복하는것이며 상업상전보도 잇는데 일시적현상이라할지라도 이와가튼 전보홍수는 우편국사무원을 밤을새우게 하얏다고한다

坑內落盤으로 鑛夫二名死傷

【長淵】 지난십일오후삼시경에황해도장연군낙도면지경리(長淵郡樂道面地境里)에잇는 계림광업주식회사 장연광산욱광(鷄林鑛業株式會社長淵鑛山旭鑛)에서는 항내가붕비한관계로 항내낙반방지작업중 돌연히낙반이 추락(岩盤)하야 작업중 광부(鑛夫) 장연군낙도면지경리(長淵郡樂道面地境里)에거주하는 강봉의(康鳳儀)(二七)와 동군동면오응리(同郡同面五鷹里)에 거주하는 신석규(申錫奎)(二七)는 두발에물편다리 경골에돌이 떨어저전부분되엿스며 광부인 동면오응리 신석규는 중상을입엇슴으로 피해자양인을 자동차로 해주김형의병원(海州金衡鎭病院)에 수용하고응급수당을가하엿든바 전기강봉의은 비참하게도 지난십일오전육시에 사망하고 신석규는 생명이 위험하다한다

四百餘洞民會合 慰靈祭를擧行

稷山落雷事件後聞

【成歡】 지난칠일에 풍우를무릅쓰고 천안군직산면군서리의 낙뢰에 의한참사에 대하여 동리에서 사망자를 위로하기위하야 직산면장 수삼명과 같이 협의하야 충남도회의원 면제기(?)와 지난구일날에 직산소학교장 조기봉(稷山小學校長曺基鳳)씨의 나가계씨의 조사(弔辭)를 비롯하야 정숙한 위령제(慰靈祭)를 거행하엿스며 직산소학교장 조뇌에 대한 강연까지 잇섯다고한다

運輸業者에게 第一回豫防注射

【元山】 원산서에서는 지난팔일부터 삼일간을예정하야 예방주사를 해상생활자 약이천명에게 시행하고 제이단계로 다시운수관계자 기타정비업자 약삼천명에게 시행하기로결정하고 지금주사약을청구중이다 그리고 제삼단적으로 일반시민에게도 계속 시행하리라하는데 이리하야 호열자병균의 침입에대한 방역진을 철벽가티하리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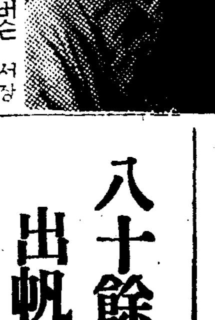
참외벗기든短刀로 婦女子를亂刺重傷

沙里院署長官舍에突入奪劍

亂舞中에마침내逮捕

暴炎이有罪 突然·精神에異狀

【沙里院】 정신이상이 발작하여 「참외」껍질을 벗기던 약사촌가량되는조선 장도(長刀)를들고 사리원동리일이팔번지 현소방조(消防組)조두인 송본리웅(松本利雄)씨부인경자(敬子)(四二)의 외이명 경부(警部)(경찰부)를 그곳 재차외이명의적다리를 찔러방금생명이 위독하게 만들고 그길을 뛰여나와바로 인근 경찰서장관사로 돌입하여 서장의 지휘도(指揮刀)를 빼여들고 서장에게 달려들며 난무중에 경관대가출동하여 체포하엿다 【沙里院】 신보경면 석제외동 상필리 당사(?)에서 [illegible] 포하엿는데 자세한내용을 알어보면 다음과갓다 동리에 거주하는 사리원역전하리(沙里院上下里) 송부영(宋富永)(三三)으로서 금도의신경쇠약으로 고민하며 「참외」장사를하던중 동일오전중에도 동리천리면옥(東里天一麵屋)아페서 「참외」를 팔고잇던바 돌연 정신에이상이생기여 참외깍던 칼을들고 저처야 부근당하던 자기를 죽이겟다고 헛소리를치다가 가족전부가 무서워 달어나므로 그곳 정육나와 바로 옆집인 송본(松本)씨집 현관으로 돌어와 「참외」부를 내려온후 무심코현관으로 달려나오든 송본경자(松本敬子)에게 돌연 달려들어 찔르고 흔들던것을 그곳 주인이 보고 달려나가 접근하매 몇군데를 찌르고 다시 기미를 보고 더러달어나 거이다른 집어로 뛰여들어가는것을추격하여 좌측(左側)경부(頸部)를 찌르고 흔들어 대로로 넘어가는것을보자 좌측대퇴다리를 찌르고나서 부인이쓰러지매 소리친 비명을듣고 달려온동리부인을 찔렀다 또한 다시추격하므로 그여자는 사력을다하여 그집인 사리원경찰서로 달려들어간다 일반 경관이다 이러한 사실을통해 떼어 달려갓던바 [illegible]



沙里院道立病院 西村外科科長談

(사진은피해자 송본경자)

칼이 조선칼은 바른쪽 좌측 경부(頸部)로부터 좌측경부 동맥이 절단되엿스나 생명은 우선은 관찰중이오 간호할필요가 잇스면 유혈을 하여야겟습니다 다 경과를 보아야 생명은 장담할수 잇스리라 하며 칼자국으로 부부생명이 위험한것이라 시키는중이나는데 바로 정신작태(精神作態)이며 선종목에서 의원 주사원(道立醫院) 여기 수면하여서 있든 안치해놓고 경과를 보고잇다 한다

沙里院道立病院 內科醫師談

본인은 바로어제 처음해보엇는 청결한이와서 건강진찰을 요구함으로 진찰을 하엿든바 국도의 신경쇠약이므로 약을주며주의를 시켯으나 곳 그렇다하여 놀래지안흘수업섯습니다 제일 다니 그와가티 큰짓할줄은 몰랏는데 여흔 모르기하겟스나 정신이 상이 발생하여 엇겟지요 운운

第二中學校基金 一萬圓寄附

淸州高見氏의壯擧

【淸州】 청주유지들은 파만제이중학교를 명춘에설치코저 기성회를조직하야 그동안맹활동중이든바 서북하게 고견변장(高見辨藏)씨는 자진하야 동기성회에 부하여 일만원을 희사하겟다고 한다 이로써 기성회의 활동은 한층 더 활발하게될것이라 청주뿐만 아니라 일반의 찬사가 자자하다고 한다

자라가는大大邱

十月一日區擴確定

【慶北支社發】 대구부행정구역확장은 예정대로 오는 시월일일부터 실시될것이라는바 당국에서는 벌서부터 준비에 착수하고 경북도에서도 정식인가를 곳 보리라고한다 이관계로 이조부가 중대문제로 대구부는 고려(高麗)측 약수의 증가를 보리라한다

八十餘名密航者 出帆刹那에逮捕

東萊郡下下端里서

【慶南支社發】 팔월십일오후 동래군사하면하단리(東萊郡沙下面下端里)해안에서 밀항하려든자 충남천안읍본정(天安邑本町)의 박재생(朴在生)외 팔십여명의 밀항자를 일망타진하엿다는 소식을 경찰관주재소원의 감시로 발각하여 체포하엿다고한다

花柳街營業時間制限

【平南支社發】 시국의 일층중대화함에 따라 평양부내의 예기조합 요리점 카페 료정(料亭)등 화류계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하고 종래의 영업시간을 밤열두시까지 로하고 평양서에서는 그한도로 각경찰서와 연락하여 시행하리라 한다

言爭타親友蹴殺

돈으로自過를湮滅하려다

綻露되여警察에被逮

【平南支社發】 지난달 평양부 주선에서 돈으로 해결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 지난달이십팔일 평양부 율리(栗里) 「자리옷」 상에서 양봉옥(梁鳳玉)이 부근동리면 면치구들이모여 술을 먹다가 싸움이 나서 동리양기보(梁基寶)(二四)라는 사나이는 역시동리노동자노병호(盧炳浩)(二一)에게 아랫배를 채워 즉사한 사건에 대하야 피해자의 집에 찾아 돈으로 해결하려다가 주선 피해자와 가족으로 보내여 사건을 덮어두려 하엿다는 것이 경찰에 발각되어 노병호는 검거되엿다

稀有의少年竊盜團

六名만은公判에

【咸南支社發】 누보 = 함흥 홍남(興南)의 소년절도단 김성욱(金聖郁)외 명은 함흥검사국에 송치되야 취조를받고잇든바 십육동지로 도라다니면서 수십여명의 소년을 부하로가지고 삼개년동안 오천여원의 절도를하야 이일 그취조가 끗나고 그중 육명만을 공판에 회부하엿다고한다

落雷로停電

【平南支社發】 오는한때는 면오고 벼락이며 사람을 죽였다 [illegible]

新婦의욕바 談

그런때에 잇습니다 나도이분 재에 책임을지기고 어제저녁에 시경찰을대비하엿스나 그들은 문제에 적지안흔 관심을 가지고 잇다고한다

緊殺、自殺兩件

【平南支社發】 데이의죄인가?무지의비극인가? 아!못(愛)을 버거삼고 영원의저주(詛呪)를 늦기는사나이의 요지음 나날이는 더간다 — 십이일오후시경 오신촌경 평원군(平原郡)에서 영업하는 원리(院里)에 이본이 용고자는사람을 발견하고 급지하엿스나 동의하야 큰게아 위독하엿다(?)

【平南支社發】 지난날인가? 십이일오후구시경 경의선(京義線)에서 「히가리」가 운전 중 박호(?) 떠나 남하하든도 연되여

嘉約行進曲 스톱

封建時代遺風의 活標本

庶子에 누어 출수엄다고 合바가 妨害

百萬長者約婚失敗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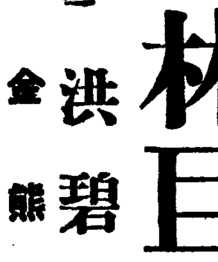
【慶北支社發】 이르키는일이잇다 대구부내에서 파거조선 사회에잇서서 가진 백만장자요 현재원해왓든 권세를 누리어 오든 우리의 모든 사회의 대화제이라는 「서자」라는 사상으로 어우 유지하는 봉건시대의 유풍을 배척 하라는 사람에게 기상을 무시하라던 결혼이 불안한 대구부 남문(南門) 장자 엇던 일부에서 장가를 가려다가 서자(庶子)의 신분이라는 것으로 부친이 반대하엿다 한다

廿五名을送還

【咸南支社發】 장연군진에 항형 [illegible] 동아평으로 송환되엿다고한다

長篇小說 林巨正 【149】

洪碧初 作 / 金熊超 畫



피 리 (三十)

단천령이 무류하야 안젓는것을 서림이가 임문하는라고 「하루쯤 더 묵으시면 별루 낭패되실일은 업겟지요」 하고 말하니 단천령은 한동안에 「당패될일은 업지만 갈길이 잇서 부지런두 사람을 못을 어 뵈히시는게 무슨의사신지 의사를 몰라서 궁금하오」 하고 대답하얏다 「시오날밤이 이런데 오시기가 어떤 선생님이 지요 우리 니 목어가시란말이지요 우리 자 예법은 물으는사람이지만 소님을 대접하는데 약의 ...

「여기가 청석골인데 청석골을 잇는데 거둔 한편 구경시켜주시오」 「이산속에 수석이나 조혼데잇 서은 물어다가 하루놀다가시지요」 「대장의 선생님이 어인이 되더라 니 목어가시란 말이요」 「내가 이번에 묘향산을 구경 하구오든데 산세두 웅장하구 수석두 기묘합디다」 「묘향산이 산세가 웅장하기는 하고 말할것업는데 「비로봉」을 보지못한 사람이라」 「네 그래요」

「묘향산이 산세가 웅장하기는 하지만 산수의 마음은 비교하야 백두산만 못하구 수석이 거

水鄕景物帖 ⑤ "미어따기" (臨津에서)

지금속히약을 쓰고조섭을하면 근치할수잇습니다

【問】 저는 부인병으로하야 참말로 걱정중 애기도못나니 몸도약해지고 여러가지 말로이것저것 약을써보앗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효험이 업고 병원에도가보앗스나 별수업섯습니다 대하증이 심하고 월경도 불순하야 항상 얼굴에 혈색이업고 요통 두통이 잇스며 신경이 날카롭고 애기를배지못해서 남편에게도 미안한지오? (一病者)

【答】 당신의병세로보아 부인병은 여러가지원인이엇스나 연성적으로 수술은 하지안코 조섭을하면 근치될수잇습니다 그러나 당신과가튼병세는 당신은 여러가지를 여러번보고 신용할만한 「명지모」와 「오기나구」를 하시기바랍니다

여자는자궁만 완전하면일생을 편하게지낼수잇습니다

애기를배지못하고, 대하증이심하고, 월경이불순하고, 수족냉증, 두통현기, 자궁출혈이심한것은자궁에고장이생긴탓입니다

자궁병에제일 효력잇는치료법

婦人良藥 命之母

主効 月經不順 子宮出血 白帶下 冷症 下腹痛 頭痛眩暈 手足冷症 產前產後

藥價 命之母 一圓 二圓 三圓 / 오기나구 一圓 二圓 三圓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合資會社 笹岡省三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三八八七番

本報咸南支社 咸興府大和町三丁目六八 電話一一四三番

桃花劇場 電話 一二三三番 八月十二日부터十四日까지三日間 每日晝夜二回 晝一時夜七時三十分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均一 ◇大世ニュース ◇松竹京都作品全發聲版 白虎隊 ◇松竹作品全發聲版 恩愛二筋道 主演 上原謙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世界の歌姬 主演 リリイ・ポンス 監督

新富座 京城新富町 電話本局五五七七番 八月十二日부터十四日까지 正午ヨリ六時開映 十七、日、祭日晝夜三回興行 普通日二回 晝一時 夜七時三十分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均一 時代活劇 飛龍必殺劍 全勝キネマ社作品 ◇ワーナー社特作全發聲日本版 ブラウンの千兩役者 主演 ジョー・E・ブラウン氏 ◇ワナ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海行かば 大每ニュス 主演 ディック・パウエル ルビー・キーラ

若劇 八月十一日より十五日まで 制服の處女 大花大ぺ 朝ニユースー 毎ニユースー アーギトンぬりち 6·15 1·50 7·45 3·20 11·00 7·55 3·30 11·10 9·15 4·50 12·30 6·25 5·00 12·40

第一劇場 八月十一日부터 四日間大公開 每日三回興行 一回正午十二時二回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均一 미이켈가데이스監督 海賊ブラット 主演 에롤·프링 와나·오리비아 데하비랜드 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미이켈가데이스監督 ブラウンお馬に乘って 主演 조-지 뿌라운 松竹大船超特作 野村伊勢大監督 女學生と兵隊さん 飯田蝶子 香椎三郎 主演 國防と資源 ニユース部 大每東日支那事變ニユース パーチーニュース ツヴエートスクリンクラブ

優美館 電話 三九五 八月十日부터 大公開 二十錢 十錢 와나·마디고 럼스 主演 深夜のマドンナ 코론비아社超特作全發聲作品 아나베라 마리·그라세 主演 モロッコの動亂 京都新興社超特作 龍虎雙劍士 全勝キネマ 熊谷草彌 監督 東日 大阪 大每 支那事變 ニュー스 東日支那事變ニュース

米穀配給機構 改革案의全貌

本年의 米作은 九州, 北海道의一部及 外地를 除外하고 一般으로 多雨寡照, 稻熱病, 螟虫의 發生에 加하야 關東, 阪神地方의 水害等으로 前途를 樂觀할수업는 狀態에잇는 그우에 事變關係에依한 壯年勞働力을 補充할 共同作業과 肥料의 機械化는 農業經營의 粗放化를 誘致하고 化學肥料의昇騰, 自給肥料의 不足과 相俟하야 段當收量의 增加는 全혀바라지못할狀態에잇다 一方 來米穀年度의公定最高米價(現在三三圓四○錢)는 政府의 物價昇騰抑制方針도잇거니와 硫安公定價格의据置, 國民主食物의 立場에서보아도 絶對로 引上치못할 事情에잇서 有馬農相, 周東米穀局長은 此點에 對하야 明白히『來年의 最高公定米價는 絶對로 引上치안는다』고 明言하고잇다 一方最低價格은 物價參酌價, 生産費의 上昇으로 現在의 二七圓三○錢에比하야 적어도 五分以上의 引上을 免치못할 狀態에잇서 有馬農相도『最高價格制限의 方針은 모든反對를 不拘하고 堅持할려니와 最低價格은 生産費와 物價參酌價를照合하야 價格差의擴大化를 重要視한다 相當한 價格의 引上을 斷行할터이다』고確言하고잇다 右와如히 來米穀年度의 最高價格은 据置, 最低價格은 昨年十一月以來 本年十月까지의 物價의動向에따라 漸次昇騰되는以上 最高, 最低의 價格幅은 今年보다도 一段縮少될것으로보힌다 이에加하야 前述의 凶作氣勢로 現在의米穀統制組織으로서는 前述의 方針下에 米價變動을 抑制하는것은 不可能할것이다 這般의事情을 밝서 有馬農相은 本年六月頃부터 米穀局에 그對策立案을 命하야 最近겨우 成案을어덧는데 問題의 波及하는바가 重大하므로 農林省으로서도 자못愼重한 態度를取하고 爲先八月下旬에 米穀新機構調整委員會의特別委員會에 附하고 다시原案을 再考한後 十月中旬에 同委員會의 總會를 開催하야 最後案을 決定하고 議會提出의 順序를밟게 되엿다 特別委員의 人員은 政府側谷口主計局長, 大森民事局長, 周東米穀局長, 新倉商務局長, 民間側 佐藤寬次, 松村眞一郎, 平田寬吉, 千石興太郎, 中野金次郎의諸氏이다

重要한改革點

爲先米穀局이立案한 米穀配給機構의 解說을하기前에 當局이 企圖하는 主要한改革點을들면

一, 協同組合主義의 徹底的强化

一, 政府가必要하다고 認定한境遇에는 一切의米는 全販聯系統機構를通하야 賣수잇게 産業組合에 强力한 區域外統制權을 附與하고 産地仲買人, 賣外移出商의 營利的取扱을禁止하야 極力統制機構의 簡易化에 努力할것

一, 米穀清算取引所의閉鎖, 其他一切의投機的要因의排除

一, 米의蒐集, 配給의各段階에잇서 手數料(公定化의 實을내일것

一, 生活困窮한者에對한 二重價格制의採用

一, 代用食(麥類)에對한 生産販賣統制

以上과如히 我米穀政策에 一大轉換을 劃하는것이다 以下順을 따라 項目別로 解說을 하여보겟다

(一)米穀蒐集販賣組織

1, 市町村長, 農會長, 産業組合長, 農事實行組合長等으로서 市町村米穀配給委員會를組織시키고 當該市町村內의米의 蒐荷, 販賣의計劃을樹立케하야 産組, 農會, 農事實行組合等의 各團體에 命令을發하게한다 이命令에 强制力을附與한다 以下組合라하는것은 全販聯系統機構, 農業倉庫業者를意味하는것으로 全販聯의發達이 不充分한 곳에서는 農會와協力하야 이에 當하고 그래도 滿足한活動을할수업는境遇에는 農事實行組合이代行하는 順序로한다

2, 産組가米穀의販賣統制上必要한境遇에는 區域外統制를認定하고 當該區域內의 地主及米作農民의모든 販賣米를一手로 無條件委託시키게한다

3, 一方政府는國家總動員法에 基하야 産組及同聯合會에對하야 米穀의貯藏, 加工, 販賣에關한 米穀配給統制上必要한 命令을한다

4, 單位組合의販賣米는全部道府縣聯合會에無條件委託을하고 聯合會는同區域內에서 販賣하는것은 米穀商組合員에賣渡하며 賣外移出米는 모두全販聯에 無條件委託을한다 但 前項의 規定에不拘하고 聯合會가 區域內의 精米, 釀造, 購買組合, 酒造組合等에 賣渡하는境遇에는 不在此限이다 縣聯이 米穀商組合員에 賣渡하는境遇에는 新設될米穀配給會社의 經營하는 正米市場을通하야 하는가 國營契約을하고 縣聯에 對하야서는 國營契約乃至 入札, 購買, 酒造組合에 對하야서 相對賣買乃至 定日入札等의方法에 依하게한다

5, 全販聯의受託米는 原則으로 米穀配給會社의經營에依한 市場을 通하야 米穀商組合員(糯米問屋, 卸商)에 賣渡하나 其他非勿論 相對賣買도조코 府縣聯合會의 境遇와같다

6, 全販聯은 出荷米에關하야 미리縣聯에 月別出荷豫定價量을 通告시키고 또全販聯各府縣事務所及 販賣所在地에서 販賣하는外에 必要하다고 認定한 境遇에는 特히 産地에서 全販聯主催에 定日入札販賣를 할수도잇다(이것은 産地滯貨乃至 酒米販賣等의特殊한境遇)但 어느境遇에든지 買主의 資格如何에依하야는 農林省의 指示에따라 賣却을 拒絶하고 米穀의地方的偏在를 是正한다 (大正七年의 米騷動은 全혀 米穀의 地方的偏在에 基因하고잇는것을 想起하라)

7, 政府는 國家總動員法에 基하야 一定한地域內에 잇서서 米穀都賣商及 小賣商에對하야 許可制를 實施하고 各各組合을組織시키며 組合員으로 하야금 組合의販賣價格, 販路協定等의 統制命令에 服從케한다 그리고 右의販賣協定이 不當하다고 認定된境遇에는政府는 變更命令을發한다 其他萬一國內의 白米의 絶對量에 不足이생기는境遇에는 少賣의 販路數量, 販賣先等에 關하야 命令에 强制力을附與하다 以下 ...

(二)米穀統制法의改正

現在政府는 米穀統制法 第四條의規定에依하야 賣外移出及朝鮮, 臺灣으로부터 內地에移出하는米穀의數量을 月別로 平均으로 하기爲하야 出廻期(十一月부터翌年二月)에 米穀의買入을하고 出廻後(八月以降十月)에 一定한條件下에 賣渡를할수잇게되엿스나 이것을改正하야 何時에나 政府의必要에 應하야 一定限度에 制約되지안코 買入賣却을할수잇게하고 米穀市場에 對한國家統制力의 一段의 强化를圖謀한다

(三)生活困窮者에對한 二重價格制의採用

이것은 有馬農相의 着眼으로『生活에困窮한者에는 特히低價한 米를供給하자』는것인데 厚生省에서 이에着手하면모르겟스나 農林省으로서는 特別會計制度의關係上 그實現에는 立法技術上 困難한 問題가惹起될지도 모르는것이다

(四)農業倉庫網의擴充

農林省에서는 前述과가튼 米穀配給機構의 實質上의 國家管理에 備하야 그前提인農業倉庫網의 積極的擴充을 企圖하고 그 前提로서 九月一日을期하야 全國一齊히 穀物倉庫의調査를 開始하기로 되엿다 依據調査要綱으로 明白한것과가티 倉庫의 規模, 保管能力, 利用方法, 立地條件等에關한 具體的資料를 蒐集하야 綜合的農業倉庫網의 整備完成을 企圖하는것으로 政府는 此等業者에 對하야 米穀의貯藏, 販賣, 加工等에 關한 米穀配給統制上 必要한 命令을할수잇게되엿다

穀物調査要綱은 如左하다

一, 調査倉庫의範圍 如左하다

1, 農業倉庫及 聯合農業倉庫(營, 砂糖또는 木炭의 貯藏에만使用하고 穀物의 貯藏에使用할수업는倉庫를除外)

2, 正租貯藏倉庫(米穀貯藏奬勵規則또는 正租貯藏倉庫建設奬勵要項의 奬勵金을바더 建設한倉庫)

3, 市町村倉庫(市町村米穀貯藏倉庫建設助成要項의 助成金을바더 建設한倉庫)但當時備荒貯蓄에만 使用하고잇는것을除外

4, 自治管理倉庫(自治管理倉庫建設補助要項의 補助金을바더 建設한倉庫)

5, 集穀倉庫(農山漁村經濟更生特別助成規則의 助成金을바더 建設한倉庫)

6 小麥倉庫(小麥貯藏倉庫建設助成金을바더 建設한倉庫)

7, 産業組合의販賣倉庫 農會또는實行組合의 倉庫其他農業團體의 經營하는穀物倉庫(穀物의貯藏에 使用할수잇는倉庫)

8, 倉庫業者의 穀物倉庫(同前)

9, 運送業者의穀物倉庫(同前)

10, 同業組合또는 商業組合의 穀物倉庫(同前)

一, 調査事項

農村及 都市의 穀物倉庫에對하야 主로 左의事項을 調査한다

1, 倉庫의普及狀況

2, 倉庫의規模及構造

3, 倉庫의利用狀況

4, 倉庫의利用區域內에 잇서서의 穀物의生産及販賣狀況

5, 倉庫의不足 또는 過剩地方의實情

6, 其他

一, 調査方法

本調査는 地方廳에 依賴하야 米穀事務所로하여금 其管內의調査에 協力시키기로한다

一, 調査時期及報告期日

本調査의 調査時期及 其本省에對한 報告期日은 如左하다

1, 本調査는 昭和十三年九月一日現在의 實情에 對하야調査할것

2, 地方廳은 本調査의結果를 九月末日까지에 本省에報告할것

(五)麥類의生産販賣統制

米穀에對한 國家統制의 强化는 他의 代用穀物에對한 轉換을 促進할念慮도잇고 一方米와對比하야 一定한 程度로 價格을抑制할必要도 잇스므로 生産, 販賣에對하야 適當한措置를한다

朝鮮內米穀需給 大異狀을現出!

七月中의米消費七十五萬石

在米僅二百卅七萬石

【農林局發表】 八月一日現在의 米穀現在高를調査하면 總數量二百三十七萬百二十七石인데 産地別及地方別內容을 示하면如左하다

一, 産地別

朝鮮米	二、三六七、三○八石
內地米	二、○五二石
臺灣米	七六七石
外國米	—
合計	二、三七○、一二七石

二, 地方別

地方別	朝鮮米 石	計 石
京畿道	三六八、七三六	三六九、三三六
忠淸北道	五四、三三九	五四、三三九
忠淸南道	三一五、一○七	三一五、一○七
全羅北道	三九一、三二四	三九一、三二四
全羅南道	三一一、一○三	三一一、一○三
慶尙北道	一七一、三九一	一七一、三三一
慶尙南道	三五○、一○五	三五○、六二六
黃海道	二一三、三四三	二一三、三四三
平安南道	一七三、八六二	一七三、八六二
平安北道	九五、七六八	九五、七六八
江原道	八○、三四四	八○、三四四
咸鏡南道	九九、一○六	九九、一○六
咸鏡北道	四○、六六六	四三、三四五
鐵道局	六、八六○	六、八六○
北鮮鐵道事務所	三五七	三五七
合計	二、三六七、三○八	二、三七○、一二七

八月一日米穀現在高는 前年同期에比하야 一百三十七萬餘石으로 八十七萬五千四百九十二石이 增加엿오 七月一日在米三百八十八萬三千九百五十五石에 比하면 百五十一萬三千八百二十八石의 減少이다 七月中의 消費量을 推算하면

七月一日現在高	三、八八三、九五五
七月中輸入高	一、七三五
同移入高	一
供給合計	三、八八五、六九一
七月中輸出高	一三、二二五
同移出高	一、一一五、○四二
八月一日在米高	二、三七○、一二七
差引消費高	七五七、二九七

으로서 七月中에七十五萬七千餘石을 消費하엿다 이消費高는 五六兩月의 一個月平均 六十三萬七千九百八十二石에 比하야 十一萬九千三百十五石의 增加이며 前年同期에 比較하면 十萬二千五百十五石의增加이엇다 그런데 內地서는 七月一日以降 十月까지 四個月間의 需給推算에잇서 朝鮮米移入을 二百萬石을잡엇는데 七月中에 移入된것이 六十九萬五千四百七石으로서 八月以降 三個月間에 百三十萬石以上을 移入해야 되는데 八月一日 朝鮮의 在米總量은 겨우 二百三十七萬石에 不過하니 內地의豫想대로 移出하다면 朝鮮在 百萬石박게 남지안어 이것으로써 持越高 五十萬石을 三個月間에 消費해야겟스니 朝鮮內의需給은 窮塞의程度로 될것이다 萬一今後 半移出이 百三十萬石못된다면 內地의需給도 異狀을 呈케될것임으로 內地凶作, 朝鮮內旱害 病虫害를 걱정하는지금에잇서 米穀界의 絶大한關心을 끌고잇다

移出港在米 五十九萬石

米倉調査—八月十日現在 朝鮮內 主要港在米高는(政府米를除함) 總計五十九萬一千三百五十六石으로 前年同期보다 三十六萬四百四十七石의 增加를示하엿다

	本年	前年同期
正租	一三六、六二○	四○、○四六
玄米	三○三、一七四	一二○、五五九
白米	一四三、一六六	一六、三六八
內地米	—	六六
臺灣米	一六三	二、九三三
計	五九一、三五六	二三○、九○九

各港別內容은如左하다

	本年	前年同期
釜山	一九四、○三六	一○七、九五三
馬山	五○、○六二	九、八八四
麗水	五三、六八一	二一、四六八
木浦	三三、六六一	一七、八三○
群山	一三四、一四三	四六、四四四
江景	八、五○一	三、三○○
仁川	三六、一一一	五四、九六五
海州	九九、一三六	五一、四四七
鎭南浦	一四、一三○	二七、三三一
元山	五、三三七	三、三三三
浦項	四、九九九	—

米移出五割增加

累計九百七十八萬二千九百石

財務局調査 八月上旬米移出高는 十九萬五千四百三石으로 比前年同期十萬一千七百四十八石의 激增이며 昨年十一月 以降米移出累計는 九百七十八萬二千九百七十六石으로 前年同期의 六百三十九萬六千九百五十九石에 比하야 三百三十八萬六千十七石(五割五分) 의 激增이엇다 八月上旬의米輸出은 一萬四千六百九十六石으로서 前年同期는 皆無이엇섯고 昨年十一月以降輸出累計는 十八萬九千六百七十六石으로서 前年同期의 一萬九千五百三十八石에比하야 五倍半의 大激增이엇든것은 注目된다

그리하야 昨年十一月以降米의 輸移出合計는 九百九十七萬五千六百五十二石으로서 前年同期의 六百四十一萬六千四百九十七石에 比하야 五割以上의 激增을 示하엿다

米輸出은五倍半激增

釜山에新米

今朝釜山正米市場에는 昨年보다 十九日이나 早期에 金海物新米一叺에 五馬店으로부터 出廻되여 石三十五圓五十錢에 辛壽甲商店間에 御祝儀賣買가成立되엿는데 品質은 昨年보다不良하다고한다

粟輸入累計 三割의減少

八月上旬粟輸入高는 一萬三千九百八十四石으로서 比前年同期 六百十二石의增加이나 昨年十一月以降粟輸入累計는 五十二萬五千石으로 比前年同期 二十四萬三千一百七十二石(三割)의減少이엇다

資金調停標準에 特殊事情을考慮

資金調整法의改正은 十五, 六日頃 勅令에依하야 그대로 朝鮮에도 施行되며 要認可限度의 引下 其他內地와가티 資金의調整强化는데 調整標準에對하야는 例컨대 纖維事業과가티 朝鮮의 特殊事情도 相當히만어 總督府에서는 꼭特例를 設定하기로하고 目下 大藏省과交涉中인데 協定의成立直後 府令인 施行規則乃至通牒으로서 調整標準에關한 特別取扱을 指示하기로되엿다한다

小額債券保留

山地理財課長歸任談

渡東中이든 總督府 理財課長 山地靖之氏는 十二日歸任하엿는데 殖産債券其他에對하야 如左히말하엿다

▲殖銀의小額債券을發行하고 시푼것은 單只賣上金을 朝鮮內事業에充當하려는理由에서가아니고 貯蓄奬勵上理由가主인데 殖銀에서 三圓券의 小額債券을 發行하는편이 內地의債券보다는 買方이모두 關心의 度를기피하리라고 생각한까닭이다 金融의 獨立化를 圖謀한다는等의 意味는 아니다 五圓小兒病에 걸린것은아니다 五圓의貯蓄債券의 發行으로 殖産債券이 流産된것은 아니다 留保한대로 歸任하엿슬뿐이다

▲大藏省과의 爲替許可協定은 二十數個條의 煩雜한것이엿스나 協定과가티 되엿스므로 內地에서 爲替를 許可한것을 朝鮮에서 輸入하는境遇에는 從來와가튼緊縮이업서지게되엿다

▲資金調整法의改正은勅令으로 施行되므로 朝鮮도 同一하나 調整標準에 對하야는 今回도朝鮮의 特殊事情을 考慮하여야하므로 目下 協議中이다

殖銀의新陣容

殖銀에서는 十五日의 定時總會에서 理事, 監事各一名의 補選을하는데 理事에는 松井房治郎氏(現大阪支店長) 監事에는 中富計太氏(現釜山支店長)가 選任되기로 內定하엿다 따라서 松井, 中富兩氏의 重役昇任에따라 支店長級의 異動이 近近잇을터인데 異動範圍는 極力으로 少數에 그칠모양이라한다

鮮滿電氣周波統一 特殊工場地帶設置

日滿實協에答申決定!

日滿實業協會에서는 本年六月에 京城에서의 定時總會에서 內藤日電副社長의 動議인 一, 鮮滿間의 電力周波數의統一 二, 鮮滿間에 特殊工場地帶의設置를 異議업시 可決하고 其後이決議에 基하야 關係方面의 意見을 聽取하고잇는데 日滿實業協會朝鮮支部에서도 이에關하야 朝鮮電氣協會及 朝鮮工業協會에對하야 諮問한結果 兩協會에서는各各研究의結果 兩問題가모두 日滿支經濟建設上 至極適切緊要한 事業이라하야 이에贊意를表하엿스므로 朝鮮支部에서는 이를 東京本部에 答申하는同時에 近近支部理事會를 開催하고 協議한後에 總督府當局에建議要望實現을 期하기로되엿는바 答申內容은如左하다

一, 鮮滿間電力周波數에 關한件 現在滿洲에比하야 發電力이만흔朝鮮의六十『사이클』로統一함이 妥當함

一, 鮮滿間適當地域에 特殊工場地帶를 設定하야 道路, 港灣, 鐵道其他의 交通關係를 整備하고合理的能率的으로 經營함이 必要한데 所謂安義一帶를 包括한 工場地帶設定과如함은 그一例이오 其他必要에應하야 設定함이妥當함

經濟警察視察次 坂本事務官渡東

經濟警察制는 豫算關係도 大略可望이 서게되엿스므로 警務局에서 坂本事務官等이 十三日京城發 渡東하야 內地의 經濟警察의 實施狀況을 視察하기로되엿다 또同氏는 經濟警察에關하야 十九, 二十兩日開催되는 內地保安課長會議에도 出席할터이라한다

府內倉庫現況

京城手形交換所調査七月中의京城府內倉庫貨物出入狀況은

	個數	金額
今月入庫	三○○、○五九	三、九一七、○五一
今月出庫	一四五、七三○	三、八六二、七九五
月末現在高	一、○六八、○三○	一五、○五九、六六五

으로前月末現在에比하야 個數에잇서서 一萬五千六百五十一個의減少, 金額에잇서서 四萬四千二百五十六圓의增加이라한다

京城勞銀騰貴

鮮銀調査에依한七月中의京城勞銀平均指數는 二○○, 五二로 前月에比하야七, 九四 前年同期에比하야○, 二二의 各騰貴이엇다

國産自動車增資申請

國産自動車工業은 前者株主總會決議에 基하야 增資에 關한認可申請을 十二日總督府에 提出하엿는데 增資額은 現在資本金二百二十萬圓을 七百二十萬圓으로 即五百萬圓增資하려는것이라고

今日의財界 十三日

◆米 (單位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仁川期米先限	三二、六四	一低
大阪期米先限	三三、七四	五高
京城(三等米一石)	三三、三○	一○低
白米(一等)	一、三○○	不變
正租(仁取)一等		九錢九厘
고무 F A Q		—

◆株 (單位十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朝新	三三、六	—
東新	一三四、九	二低
鐘紡	一二五、五	一高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三品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綿絲	一九七、○○	二○低
人絹	—	—
砂糖	二三、○○	—

眞正恢復困難

株式市場을 不安케하던 國境事件은 停戰協定으로 主力株中心의 一齊急反騰을 演하엿스나 蘇滿國境劃定이 根本的으로解決되지안는限 第二, 第三의張鼓峯事件이 何時何處에서 續發될지도모르는 不安이 그대로잇다 從하야 停戰協定好感도 一高에 止하고 積極買를 喚起치는못하는모양이다 東株理事者는 株式低落의 原因이 不均衡한 增稅때문이라하야 그是正을 藏相에게 陳情하고 藏相도 考慮를約束하얏다지만 昨今株式市場의低迷는 政府의 消費制限其他 戰時經濟策實施의 影響을바더 아모래도 新事業이 여의치안는데 있다

東新은 百三十四圓九十錢에 五十一低 鐘紡二百二十五圓九十錢에 一低로 軟調寄付後 東新五圓三○錢을 엇다가 四圓九에大引 鐘紡은六圓五의 通帳大引이고 後場은土曜로例休이엇다

好轉은果何時

株界가 活躍할時期가 언제일가 이것은 누구나 궁금하여지는 問題인데 大體豫想되는 時期는 株式配當課稅方法이 改正되는 때라고 衆口가一致되여잇는모양이나 그改正結果가 株式買에 有利하냐 不利하냐에 依하야 左右되리라고한다

期米 依然不動 頭重

前場伸悩

今朝阪地先限三十五圓六十九錢인 昨止同樣의報導를接하고 當限은賣買不成中은三圓○三錢인三丁高로 先限은三十二圓六十四錢인一丁反落으로 寄한後 阪地四節七十八錢으로反高함을따라 四節六十八錢까지少戾하더니 五節에至하야는 阪地七十九錢인又復一丁高를 示함에도 當限은 二圓九十七錢인 一丁反落이고 中限은 金益店의 猛烈한賣物이現出하야 二圓九十六錢인六丁反落이고 先限도亦然六十八錢으로 阪地七十八, 九錢에서 揉合함을繼續하야 六節六十二錢에고 結局阪止七十四錢을보고 六十四錢에 止閉한바 後場은 土曜로 例休이엇다

▲第三五分一○, 二六五▲二十三年物九八七○▲米五分半三二六○○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今朝颱風消息 朝鮮으로侵入?

目下 內地의事情으로 보아서 朝鮮은如干風害가 잇다할지라도 颱風의侵入을 憂慮하고잇스나 ...

時局株再檢討

從來는時局産業이라하면 무엇이나 增資와 拂込을 認可하고 이것이 材料로 買煽되엿스나 이번은政府에서 資金調整法을 强化하야 從來의設備를 全運轉鐵業을 計劃 ...

株式 高價保合 閑散

前場强保

今朝는 外電低落도 兼하야 休日을압두고 買 ...

今日의市勢【十三日】

國債閑散【東京電話同盟】

刺戟材料가업는데다가 內地債는 長期, 實物이 모두 全혀 釘付保合이오 外債는 米貨當限에 五錢 ...

米正 各地商狀 區區

京城下押

一部에稻作悲觀說이擡頭하야 殘存米增加發表에도不拘하고 所持側은 依然히賣 ...

大邱釘付

群山少高

木浦釘付

仁川低落

釜山底堅

阪强仁軟擴稍

昨今阪仁의鞘는 三百丁을中心으로 一擴一縮하야 阪地는五圓六十錢臺 當地는 二圓六十錢臺 ...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東

期米 株式 仁川海岸町 京城黃金町 大 マルダイ取引店

株式 期米 玉 マルタマ取引店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海外經濟 十三日

銀行券 十三日

金利 手形交換

鰯油粕 麥粉

金銀價

對外爲替

正米

仁川正米標準價

雜穀

綿絲布

滿洲商況

京城物價 十三日

株式

朝取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

期米

朝取期米

大阪期米

釜山期米

木浦期米

大邱期米

群山期米

東京期米

各地期米

綿絲

綿花

人絹

生絲

砂糖

[illegible]